

2011 인천세계 음식문화 박람회

2011.10.7(금)~10.9(일)
문학경기장 동문광장 일원

10월7일-특집공개방송(개막식)
TBN 인천교통방송 FM 100.5MHz

주최·주관 | 인천광역시
주 관 | 인천세계음식문화박람회추진협의회
인천광역시영양사회
새대안제과협회인천광역시지회
대한조리사회중앙회인천광역시지회
후 원 |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문의 | 032)440-2763
<http://cafe.naver.com/incheonfoodfair>

대한민국 **인성** Incheon!
The Leading City
경제수도 **인천**

전시(박람회)

- 음식문화관 - 한국관 및 세계관
- 식품기기 및 용품 - 식품가공기기, 주방기기
- 특별전시관 - 주류관, 제과·제빵전시관
떡전시관, 영양체험관

경연

- 한식 등 조리 경연대회(10월7일~9일)
- 제과 경연대회(10월8일)

참여·체험

- 대형케이크 제작 및 웰빙 제과·제빵 시식
- 다문화가정 사랑의 김치 만들기
- 피자, 대형김밥만들기, 세계음식만들기
- 다문화 체험존, 노래자랑대회
- 다문화음식 및 인천대표음식거리 운영

2011 Incheon Global Food Culture Fair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11 / 10

책 읽는 인천 시 독서 프로그램
Zoom In 2011 자매·우호도시 정상회의
당신을 지원합니다 응급의료전용헬기 운항



굿모닝인천은 goodmorning.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8306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Cover Story

송도컨벤시아

태백산맥을 도티브로 건축된 송도컨벤시아입니다. 첩첩(疊疊)하게 쌓여 있는 산의 곡선미가 살아 있는 듯 합니다. 인천과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행사과 전시 컨벤션이 개최되는 곳이기도. 도심 속에 산을 옮겨 온 것은, 민족의 중요한 태백산맥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 인천이 있었다는 진중함이 아닐까요.



03 **Communication** 소통과 화합

06 **인천스케치** 송도국제도시 유희부지

08 **책 읽는 인천** 시 독서 프로그램
책이 있는 공간

16 **Zoom In** 2011 자매·우호도시 정상회의

20 **당신을 지원합니다** 금융의료전용헬기 운항

22 **지역특산물** 인천하늘란

24 **비전인천** 시민체감형 시책

26 **Enjoy Incheon** 계양산 자연치즈 체험장

28 **Old But New** 북성동

- 34 **사람과 사람** 김미혜, 윤순자
- 38 **Culture News** 문화뉴스, 이달의 공연전시
- 42 **Focus** 10·4 남북선언 기념식 개최
- 43 **모닝커피 한잔** 아벨서점 곽현숙
- 44 **별난 물건, 별난 역사** 곡항(穀港) 인천의 정미업
- 46 **Civic News** 시정뉴스
- 49 **Council News** 의정뉴스
- 56 **Spot the Difference** 다른 그림 찾기
- 57 **김치찰락** '미래의 피아니스트' 외
- 58 **세계 속 인천** 송도국제도시

06 인천 스케치 | 송도국제도시, 유류부지

도시 한가운데도, 가을은 왔다

햇빛의 기세가 누그러지고 바람이 제법 소슬하다. 고개를 젖히면 파란 하늘이 탐스러운 구름을 거느리고 유유히 흘러간다. 거리에는 꽃들이 한들 한들 향기를 흠날린다. 높다란 빌딩 숲 사이에도, 가을은 왔다.

08 책 읽는 인천 | 시 독서 프로그램

책 읽는 시민, 도시 격 높다

몇 년 전 모 방송프로그램에서 ‘책, 책을 읽읍시다’라는 코너가 인기를 끈 적이 있다. 이제 인천이 책 읽는 도시가 되어 시민들의 독서분위기 조성 및 확산을 꾀하고 있다.

28 Old But New | 북성동
선창가 뱃고동과 갈매기 울음 아직도 아련
 웅봉산 줄기가 내쳐 달리다 바다와 맞닿았다. 그 땅은 ‘곳’이 되어 고기잡이배들의 안식처인 포구가 되었다. 도크가 생기기 전에는 바다 물결이 경인선 철도가 끝나는 지점 바로 밑까지 밀려들어들었다.

소통과 화합 communication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

인천시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
인터넷방송 민트TV(tv.incheon.go.kr)
인터넷신문 I - view(enews.incheon.go.kr)
블로그(blog.naver.com/flyic)
트위터(twitter.com/smartincheon)
미투데이(me2day.net/incheon4u)
페이스북(www.facebook.com/visionincheon)을 통해 인천과 만나세요.
시민 여러분의 의견이라면, 쓰든 달든 언제나 환영합니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인천에 대한 생각과 인천의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032-440-8305 홈페이지(goodmorning.incheon.go.kr)로도 받습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접수됩니다.

와~ 인천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파주에 살고 있는 여대생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주위 분이 <굿모닝인천>을 건네주어 쉬는 시간마다 틈틈이 읽고 있습니다. 그러다 인천이라는 도시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인천하면 바다를 떠올렸는데 글로벌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네요. 특히 책에서 본 인천대교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자랑거리라고 생각해요. 인천에 많이 가보지는 못했지만 책에서 친절히 설명하는 대로 하나씩 찾아가 즐겨보려 합니다. 인천 파이팅!

_ 김솔 파주시 파주읍

어서 돌아가고픈 인천

인천에 살다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요양 차 시골에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서 <굿모닝인천>을 보니 어서 빨리 제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소금하면 남도에서 나는 소금만 생각했는데 인천에도 염전이 있었네요. 염부들의 부지런한 손놀림에서 보석보다 찬란한 소금꽃이 피어나는 과정이 고귀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자연의 섭리와 부지런한 땀방울이 빚어낸 아름다운 결정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_ 조광선 전남 곡성군

시민과 더 가까이 소통했으면

<굿모닝인천>은 기획 구성과 디자인, 콘텐츠가 풍부하고 또 훌륭합니다. 여기에 애독자로서 의견을 낸다면 '시민이 참여하는 란을 더 늘리면 어떨까'하는 겁니다. 시민의 눈으로 바라본 인천은 또 다른 매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인터뷰하고 그들이 직접 느낀 바를 기사로 게재한다면, 지금보다 더 풍성하고 시민과 가까이하는 <굿모닝인천>이 될 거예요.

_ 임현범 동구 창영동

한마음으로 2014 AG를 준비해요

인천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막을 내린 2011 대구세계육상대회에서 보여 준 자원봉사자들의 섬김을 본받아, 인천에서도 국제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 우리 친절하고 세련된 매너로 외국에서 온 손님들을 맞이해, 성공적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치릅니다.

_ 손재우 수원시 장안구

송도국제도시에 가니 마치 외국에 온 듯

언젠가 지하철에서 <굿모닝인천>을 처음 보았습니다. 거리상으로 그리 멀지 않은데도 인천에 대해 잘 몰랐는데 책을 통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바다가 있는 항구도시라는 이미지를 벗고 세계적인 경제도시로 발전하고 있더군요. 특히 언젠가 송도국제도시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현대적인 빌딩과 잘 정리된 깨끗한 거리, 마치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길 바랍니다.

_ 김민준 서울시 성북구

우리 동네, 우리 이웃의 이야기

인천시가 시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요즘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굿모닝인천>에서 보니 최근 소셜웹도 구축했더군요.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 시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인천시는 시민에 가까이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펼치길 바랄게요. 아 그리고 <굿모닝인천>에 나오는 인천사람들 이야기도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우리 동네에 사는 이웃의 이야기라서 친근하게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노력해 주세요.

_ 김은수 부평구 부평동



시민께서 송영길 시장 트위터(@bulloger)를 통해 문의한 것에 대한 해당 부서의 답변입니다.

@bulloger **시장실 오픈데이 때 초중학생들에게 시장실과 시의회 의장실을 개방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약간의 간식이라도 제공했으면 좋았을 텐데, 혹시 선거법에 걸리나요?**

항상 인천시정의 발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념품 및 차량 제공 기타 선거구민에게 기부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되어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bulloger **시장실에 방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천광역시홈페이지를 통해 시장실 오픈데이방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bulloger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송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라도 신경 써주었으면 합니다. 인프라 구축 초기에 LH공사 가 제시했던 약속을 이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시에서는 투자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LH공사에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LH공사와 협력해 R&D, 부품소재 첨단산업 등 청라경제자유구역에 대기업을 비롯한 국내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bulloger **월곶에서 소래로 넘어가는 다리가 너무 막힙니다. 교통 확충이 필요한 것 같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한지요?**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소래 IC 설치와 연계하는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소래IC 설치 찬반 논란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기 바라며,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람을 찾아주세요



이름 임진락(당시 만 82세, 여)
발생일자 2007년 4월 9일
발생장소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자택
신체특징 153cm, 47kg, 치매증상, 반 백발, 검은 피부, 얼굴이 작은 편
제보처 보건복지부위탁 실종아동전문기관 02-777-0182
www.missingchild.or.kr



도시 한가운데도 가을은 왔다

햇빛의 기세가 누그러지고 바람이 제법 소슬하다. 고개를 젖히면 파란 하늘이 탐스러운 구름을 거느리고 유유히 흘러간다. 거리에는 꽃들이 한들한들 향기를 흠날린다. 높다란 빌딩 숲 사이에도, 가을은 왔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가을이 무르익었다. 햇살 따라 바람 따라 마음이 이끄는 대로 무작정 발길을 옮긴다. 송도 국제도시 커널워크 맞은편 큰길 옆에는 해당화가 활짝 펴 주위를 환하게 물들인다. 높은 빌딩 숲 사이 어찌 이렇듯 정겨운 정취가 숨어 있었을까, 반가운 마음이 발걸음을 이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내 오랜 시간 개발이 유보되고 있는 유희부지 10만 2천㎡를 꽃으로 둘러싸인 쉼터로 조성했다. 경제청은 올봄 해당화를 심은 것을 시작으로 코스모스, 쑥부쟁이, 해바라기 등을 꽃피워 향기로운 산책로를 만들었다. 허허벌판에 뿌리 내린 해당화는 어느새 소담스럽게 군락을 이뤄 여름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었다. 꽃과 열매가 향수의 원료로 쓰인다더니, 바람결 따라 밀려오는 향이 깊고 그윽하다.

유희부지 안으로 들어서니 곳곳에 가을꽃과 이름 모를 야생화가 피어 있다. 척박한 땅에 뿌리내리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꽃들은 소담스럽게 무더기져 있지 않고 드문드문 외로이 펴 있다. 그래도 햇살바람과 벗하고 때론 심술을 건디며 자기 몫을 다해 피고 지는 모습이



아름답다. 산책로 곳곳에는 정자와 벤치가 놓여있어 잠시 가을별을 피해 쉬어가기 좋다. 시야를 가득 채우는 갈대숲과 그 곁의 연못은 무르익어가는 가을 속에 있음을 느끼게 한다. 수더분한 땅 빛, 노랗게 물들어가는 갈대숲은 바람에 취해 몸을 뉘인다. 그 안에서 게으른 한때를 즐기다, 잠시 어린시절로 돌아가 잔잔한 수면 위에 퐁퐁퐁 물수제비를 띄어 본다.

송도국제도시 유희부지는 휴식공간으로 조성이 마무리되지 않아 가을을 만끽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느낌이다. 하지만 경제청은 이곳을 개발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가꾸어 도심의 여유로운 쉼터로 만들 계획이다.

아름다운 이 계절을 느껴보라, 마음이 부르는 손짓에 귀 기울이자. 그리 멀리 않은 도시 한가운데도 가을은 이미 내려앉았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 453-7244

책 읽는 시민 도시 격 높인다

몇 년 전 모 방송프로그램에서 '책, 책을 읽읍시다'라는 코너가 인기를 끈 적이 있다. 시민들의 독서분위기 조성책 읽기 운동을 주도해 호평을 받은 프로그램이었다. 이제 인천이 책 읽는 도시가 되어 시민의 독서분위기 조성 및 확산을 꾀하고 있다. 인천은 책을 도시의 브랜드로 삼고, 문화도시의 '격'을 높이고 있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책 읽기 생활화, 책 읽는 분위기 조성

우리는 시민이 책을 가까이하고, 계층과 나이에 상관없는 책 읽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범시민 독서진흥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2014년엔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 책의 수도' 추진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인다. 세계 책의 수도로 지정되면 저작권, 출판, 문학작품 창작 등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로 독서문화 중심으로 발돋움한다. 이를 실천할 9대 과제도 추진한다.

우선 시를 비롯한 구·군, 교육청, 공사·공단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책 읽는 도시, 인천' 비전 선포식을 2012년에 개최하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여 책 읽기 생활화, 책 읽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구·군에서도 책 읽기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별 독서동아리 모임 지원 활성화,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을 확충한다. 이로써 전국 최하위 도서관 인프라 시설, 지식문화 취약 도시라는 침체된 이미지를 벗는다.

시는 전국 최초로 '한 도시, 한 책 읽기'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결합한 콘텐츠를 개발, 보급한다. 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는 SNS를 통해 '올해 인천의 책' 콘텐츠로 전파한다.

시는 책 관련 프로그램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볼 수 있게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한다. 책 어플은 모바일홈페이지와 연계, 올해 인천의 책, 블로그 및 SNS 서평콘텐츠, 도서요약서비스, 올해 인천의 작가, 도서검색서비스 등을 수록하여 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책을 볼 수 있도록 공원, 대형마트를 비롯한 공단, 도서지역에 '무인도서관 시스템'을 설치한다. 대형마트, 중소기업 밀집공단, 전철역사, 아파트 등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해 도서관 카드만 갖고 있으면 시간 제약없이 도서대출, 반납이 가능하다. 작년 시범 설치된 '주안역 책나루'는 작년 총 대출자가 2천517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시민이 이용했다.



2013년까지 도서관 60개 확충, 장서 30만권 증서

다양한 계층의 요구와 수준에 적합한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독서 첫 걸음마를 떼는 유아들을 위해 북스타트,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위한 북 그로우(Book grow), 고령자, 실버세대 위한 북 피니쉬(Book finish) 운동으로 시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독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책 읽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기본인프라 조성차원에서 도서관을 매년 확충한다. 인천의 2010년 현재 도서관수는 전국 11위, 장서도 전국 11위다. 도서관은 2013년까지 총 60개소를 확충하고, 책은 연간 30만권 증서를 추진한다.

장애인 등 정보소의 계층을 위한 독서장려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책 읽기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책 읽어주는 낭독콘서트, 조손부모, 한부모 가정 어린이를 대상으로 독서교실을 추진한다.

시는 공무원부터 책 읽기에 솔선수범하고자 ‘리더의 책 읽기’ 코너를 시 내부 사이트에 마련, 간부공무원들의 서평을 게재하고 있다. 현재 100편이 넘는 독후감이 게재되었고, 팝업창을 통해 전직원이 매일 한편씩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민이 서평을 올릴 수 있는 ‘시민서재 인천’ 코너도 마련한다. 감명 깊게 읽은 내용을 자유롭게 서평으로 올려 활발한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시는 주기적으로 시장과 간부공무원과의 독서토론을 실시, 직장 내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독서를 통해 업무 효율을 기한다. 연수구도 청장과 간부공무원이 함께하는 독서토론회를 개최한다.

책 읽는 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부족한 장서확충을 위해 시민들로부터 자발적 도서기증을 받고 있다. 그간 송영길 시장이 150권, 지용택 새얼문화이사장이 150권을 기탁했고, 김홍복 중구청장이 자신이 아끼고 손때가 묻은 200권의 책을 올목도서관에 기탁했다. 신한은행도 인천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운동에 뜻을 같이 하는 의미에서 장서 7백50권을 기증했다.

도시개발공사는 자체 도서기증을 받아 북카페, 도서실, 관련시설에 3천권이 넘는 도서를 기증했다. 그간 도서기탁 참여율은 소방본부 1천4백권, 환경공단 1천권 등을 비롯, 본청, 사업소, 공사·공단, 재단을 포함해 현재 7천권이 넘는 기탁이 이뤄졌다.

구·군에서도 독서문화는 계속 퍼지고 있다. 동·중·남동구는 구립도서관을 설립해 도서관인프라를 구축하고, 동구는 연중으로 배다리 현책방거리에 ‘시낭송회’를 열어 문학의 향기를 널리 퍼트린다.

숲속도서관, 북카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대공원, 월미공원, 송현근린공원 적송원 등 19개 숲속도서관을 만들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주민센터의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신간을 구비한 북카페를 21개소에 설치했으며, 교통공사를 비롯한 공사·공단도 15개의 북카페를 설치했다. 인천메트로는 독서열차로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서구는 순회차량을 이용한 이동도서관을 운영, 5개 노선 17개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주민들에게 책 서비스를 한다. 남구는 지역아동센터에 도서 재 기증사업을 전개한다. 계양구는 전국 최초 스마트폰 QR코드를 활용한 ‘한 도시 한 책읽기’ 콘텐츠를 개발 보급한다. 옹진군은 농어촌 실정에 맞게 영흥도와 대청도에 농어촌 공공도서관을 만들고, 독서기회가 적은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남동구는 간석1동, 남촌도림동 지역 내에 있는 홈플러스, 대형병원 등 시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북카페를 설치하며, 중구는 만 3세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드림북배달부 프로그램을 운영, 주 1회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도서를 대여하는 특화사업을 벌인다.

책을 통해 인천은 문화의 도시로, 격을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책의 세계에서 대화를 나누고, 말과 말을 이으며 삶의 교훈을 얻는다. 책 읽기 좋은 10월. 책을 읽으며 양식을 얻고, 길을 찾는 문화시민이 되어보자!



10월엔 ‘책의 향연’에 빠져보자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독서관련 행사가 인천 곳곳에서 열린다. 작가와 책에 관한 내용을 서로주고 받으며 감동을 나누는 ‘유명작가와 대화’를 마련한다. ‘북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한다. 유명작가가 쓴 책에 대해 저자와 시민과의 진솔한 대화로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감동의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 2030, 책 읽는 도시 인천을 그리다’를 주제로 대학생 또는 일반인이 참여하는 시민 독서토론회가 열려 젊은이들과 책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시민이 유익하고 읽기 좋은 책 100선을 선정, 발표한다.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으로 나누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추천한 도서들로 꾸민다. 선정도서를 기반으로 10~11월 중 온라인서평대회를 준비한다. 향후 1인 1책 시민출판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자서전, 문집 등의 출판을 원하는 일반시민이 대상이다. 출판방법은 ‘책 읽는 도시 인천’ 홈페이지 내 ‘시민출판’ 코너를 생성, ‘시민출판’ 온라인 1인 플랫폼을 구성한다. 시민이 직접 내용을 작성하고, 업로드하면 된다. 참여자중 반기별 1%의 시민원고는 오프라인으로 출판을 지원해, 직접 책을 출판하는 기회를 선사한다. 계양구는 10월 11일(화) 공병호 경영연구소장을 초빙, ‘독서를 통한 자기경영’이라는 주제를 갖고 작가와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서권기 문자향(書卷氣 文字香). 추사 김정희는 “가슴속에 책 만 권이 들어 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 그림과 글씨가 된다”고 했다. 우리 마음에 맑고 깨끗한 그림 한 점 그리러, 책 향기 그윽이 머무는 곳으로 간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나비가 사는 세상에서 책 읽기 나비북카페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색색의 바람개비가 돈다. 눈앞에서 나비가 하늘하늘 날갯짓을 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두드린다.

도심 속 푸른 쉼터 ‘인천나비공원’에 아담한 북 카페가 문을 열었다. 자연교육센터 2층 발코니에 자리 잡은 카페 안으로 들어서니, 곳곳에 핀 나비들이 금방이라도 하늘을 훨훨 날 듯 하다. 쏟아지는 햇빛, 창밖으로는 가을날의 정취가 고스란히 전해진다. 따듯한 감촉의 나무테이블 위에서 책 한 권 여유롭게 읽는 호사를 누려 본다.

이 곳에는 아이들의 감성을 일깨우고 동심을 자라게 하는 책과 엄마 아빠를 위한 시집과 소설책 등 책 200여 권이 구비되어 있다.

아이와 손잡고 찾은 도심의 공원 그 안의 작은 북 카페 그리고 테이블 위 펼쳐진 책.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한 시간 속에 아이의 꿈도 푸르게 푸르게 자라난다.



TIP 나비북카페는 부평구가 부평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에 위탁, 운영한다. 카페 수익금은 수급자들의 자립과 사회적 기업의 운영 등에 쓰인다. 오전 9시에 문을 열어 하절기에는 오후 6시까지, 동절기에는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문의 517-1982



현책방에서 누리는 행복 배다리 나비 날다

사람냄새 종이냄새 물씬 나는 동네, 배다리. 세월의 곱절이 자욱이 쌓인 현책방들 사이 유독 화사하게 빛나는 공간이 있다. 이름도 예쁜 ‘나비 날다-나(눔)과 비(움), 오래된 책 집에 날아들다’.

5평 남짓한 공간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채워져 있고 예쁜 소품이 아기자기 놓여 있다. 저기 햇살 내리는 창가에는 보송보송 귀여운 고양이들이 오수를 즐기고 있다. ‘나비날다’는 배다리 주민이 하나둘 뜻을 모아 만든 소중한 책 쉼터로, 인천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줄곧 환경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권은숙(42)씨가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일상에서 쉽게 버려지는 것들이 새 생명을 입고 다시 태어난다. 간판은 기존 현책방에서 쓰던 것을 그대로 살렸고 버려진 나무판자를 모아 책꽂이를 만들고 책상을 짰다. 책도 거의 헌 책이다. 손때 묻은 책장을 넘기노라면 그 안에 담긴 누군가의 사연이 아련히 밀려오는 듯하다. “오래된 것들이 풍기는 편안한 속에서 일상 속 스쳐 지나갔던 주변을 돌아보고 여유를 찾았으면 해요.”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를 지나 다다른 작은 책 쉼터. 여기서는 차를 사 마시지 않아도 물건을 사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저 친구집에 들른 듯 편하게 책 한 권 읽고 가면 된다. 행복은 그렇게 가까이 있다.



TIP 2천원 정도 내면 책을 보며 따듯한 차 한 잔 마실 수 있다. 돈이 없으면 자신의 것과 필요한 것을 나누면 된다. 또 ‘작은가게’를 통해 공정 무역 유기농 먹거리와 손으로 만든 친환경 물건을 사며 윤리적 소비를 실천할 수 있다.
문의 011-9007-3427



TIP 책은 모두 시민이 기증한 것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책을 다 읽은 후에 제자리에 꽂아두면 된다. 따뜻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싶다면 공원안내소에 도서를 기증하면 된다. 문의 : 월미공원 765-4133, 인천대공원 466-7282

나무 그늘 아래, 종이향에 취하다 숲속도서관

때 묻지 않은 자연이 온전히 살아 숨쉬는 월미산, 그 산책로 입구에 지난 4월 ‘숲속도서관’이 생겼다. 바로 옆 나무 그늘 아래 벤치가 놓여 있어 여유로운 한때를 즐기기에 좋다. 전화 부스 모양을 한 작은 도서관 안에는, 누군가의 소중한 사연이 담긴 책 600여 권이 또 다른 누군가의 추억을 아로새기길 기다리고 있다. 책은 도서관증운동으로 시민이 한 권 한 권 소중한 모은 것으로, 책장을 넘기면 그 고마운 마음이 종이향과 함께 흠뻑 배어난다. 월미공원은 지난 7월 한국전통정원과 정상부근 광장에 추가로 부스 두 개를 더 설치해 현재 숲속도서관 세 곳을 운영하고 있다. 산길을 거닐다 땀이 송글 송글 맺히면 잠시 쉬었다가자. 나무그늘 아래서 책 향기에 고즈넉이 취하면 세상 부러울 게 없다. 인천대공원에도 호수 주변을 시작해 관모산 등산로 입구, 야생 초화원 정자 주변, 수목원 입구, 벚꽃길 동물원 주변 등에 숲속도서관이 있다. 우리시는 앞으로도 관내 공원에 지속적으로 숲속도서관을 지을 계획이다.

한 편의 영화 같은 여유 영화공간 주안

아름다운 영상이 흐르는 ‘영화공간 주안’. 영화관 로비 중앙에 있는 북카페에서 에스프레소 한 잔 즐기며 책장을 넘기는 것은 이곳에서 누리는 또 다른 즐거움이다. “영화공간 주안은 단순한 영화관이 아닌 다양한 문화예술의 안식처예요. 북카페도 그 일환으로 또 관객이 영화가 시작하기를 기다리는 시간에 책을 보며 여유를 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했어요.” 영화공간 최은선 매니저의 말에 관객을 위한 따뜻한 배려가 느껴진다. 2년 전 문을 연 북카페는 그리 넓지 않지만 시민에게 기증받은 책 2천 여 권이 차곡차 채워져 있다. 영화를 비롯한 영상 관련 서적부터 미술, 문학, 라이프스타일에 이르기까지 책마다 재미와 감동이 넘쳐난다. 전문 분야의 책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신선한 감각을 일깨우기 충분하다. 눈물과 웃음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한 편의 영화처럼, 예술은 이곳 책 속에 있고 책은 또 이렇게 우리 가까이 있다.



TIP 북카페는 영화관 운영시간인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복합 문화공간인 영화공간 주안에는 영화 상영 외에도 인디 밴드 콘서트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앞으로 사진과 그림 등의 전시회도 열 계획이다. 문의 427-6777



도시외교로 인천을 빛내다

21세기 지구촌은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도시간 상호 교류 및 협력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를 리드한다. 10월 우리시에서 열리는 '2011자매 · 우호도시 정상회의'도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회의는 자매도시 정상들이 모여 도시의 비전과 발전방안을 논하는 자리다. 자매 · 우호도시들인 만큼 격의없는 다양한 교류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인천도 이제 세계의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드높이고 있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2007년 '인천선언문'에 따라 추진하는 '자매 · 우호도시 정상회의'는 격년으로 열려 올해로 세 번째다. 10월 13~14일까지 2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하고, 회의주제는 '스마트 시티 구축방안'으로 U-City월드포럼과 연계해 추진한다. U-City 월드포럼은 지자체별로 실시되고 있는 U-City시범도시 사업을 한데 모아 사례별로 발표하는 컨퍼런스 성격의 국제행사다. 이 행사에서 자매우호도시 정상들은 IT강국 한국의 발전된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각 도시에 적합한 IT기술력에 대한 다양한 자문과 기술을 제공받는다.

이번 정상회의의 주목할 만한 행사로는 몽골 울란바토르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다. 몽골 울



란바토르시와는 이미 2007년 8월 Mou를 맺은 바 있고, 이번 2011자매 · 우호도시정상회의에서 결실을 보게 됐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와도 적극적인 우호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 회의에 상트페테르부르크시는 전 · 현직 시장, 상원의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올 예정이다. 함께 방문하는 예술공연단은 수준높은 러시아 예술을 선보인다. 올 초 송영길 시장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시를 방문해 양도시의 친선과 교류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나누었고, 인천광장을 조성에 참여해 우의를 다진 바 있다.

우리시도 답례차원으로 이번 자매도시 정상회의 행사의 하나로 중구 연안부두 친수공간 명칭을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으로 명명하고, 특색있는 조형물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 러시아예술단은 10월 14일 열리는 시민의날 행사에 참여해 수준높은 러시아 예술을 선보인다.

자매 · 우호도시 참가 정상들은 전세계 스마트도시의 모델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IT기술을 체험하고 둘러보며, 자국의 도시계획 추진현황 및 전략을 발표하는 시간도 갖는다. 각국 도시들의 개발계획 발표가 있는 후 우리나라 굴지의 IT기업인 삼성 SDS, LG CNS 등이 각 도시에 응용할 수 있는 기술력과 비전을 제시한다. 즉 각 도시 관계자와 국내기업을 매칭, 도시에 적합한 IT기술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미팅행사를 진행한다. 도시정상들은 시정견학, 도시별 비즈니스 활동을 한 후 10월 14일 인천시민의날 기념 행사에 참석, 시민의 날을 축하하며 인천시민과 한데 어우러진다.

자매 · 우호도시 정상회의는 2007년 시작해 1회 때는 7개 도시, 2회(2009) 때는 19개 도시 대표 등이 참여해 회를 더 할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행사로 거듭나고 있다.



이탈리아 베네토
베네토는 이탈리아에서 세 번째로 큰 와인생산지역이다. 2010년 9월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Veneto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지중해에 위치한 아름다운 항구도시로 카이로 북서쪽 약 180km 지점에 있는 대도시다. 2000년 5월 17일 자매결연.



Alexandria



베트남 하이퐁
베트남 북부 항구도시이며 공업도시다. 1997년 7월 자매결연을 맺었다.

캄보디아 프놈펜
메콩강과 톤레사프강의 합류점에 있다. 2009년 3월 자매결연을 가졌다.

인도네시아 반톤주
반톤주는 인도네시아의 주 가운데 하나로 자와섬에 위치. 2009년 9월 14일 자매결연을 맺었다.



Tel Aviv

이스라엘 텔아비브
이스라엘 서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다. 수도 예루살렘 다음으로 인구가 많으며 경제중심지다. 2000년 5월 자매결연을 맺었고, 인구는 40만이다.

Yekaterinburg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시베리아 철도의 서쪽 종착역으로 철도, 항공의 분기점이다. 2009년 9월 14일 자매결연 체결했고, 인구는 133만명이다.

중국 천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직할시로 승격해 중국의 경제건설과 종합적인 공업기지 및 상업무역중심지로 지위를 굳히고 있다. 1993년 12월 자매결연을 맺었다.

중국 중경
중국 4대 직할지 가운데 하나다. 인구는 3천235명이고, 면적은 8만 2천4백km²다. 중국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2007년 자매결연을 맺었다.

기타큐슈

일본 규슈 최북단에 있는 후쿠오카 현의 도시로 북동부에 위치한다. 1988년 12월 20일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인구는 99만이다.

고베

일본에서 6번째로 큰 도시로 효고현의 현청 소재지이자 일본을 대표하는 항만 도시로 인구는 약 150만명이다. 2010년 인천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Tianjin



Chongqing



Kobe

Kitakyushu

Manila

Philippines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Haiphong

Phnum Penh

Banten



생명 지키는 하늘 위 응급실

응급 상황이 생겨도 빨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위험에 처하는 섬사람들. 우리시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섬마을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응급의료전용헬기를 운항한다. 하늘을 나는 응급실이 섬마을과 바다 건너 세상을 하나로 이으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있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아파도 병원 가기 어려운 섬사람들

우리에게 아프거나 다치면 병원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이 어렵고 멀기만 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다. 주민 대부분이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다 보니 아픈 몸을 이끌고 머나 먼 뱃길을 건널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웬만한 병은 참고 견디고 그러다 병을 더 크게 키우는 일이 부지기수다. 특히 응급 환자의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가 이뤄져야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중증외상의 경우 1시간, 심근경색과 뇌졸중인 경우 3시간이라는 시간과 다투야 한다. 하지만 도심에서 떨어진 도서지역의 경우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하고 이송체계가 미흡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병원으로 이송까지 단 1시간

이렇듯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섬마을 주민의 건강을 돌보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응급의료전용헬기가 하늘을 난다. 우리시는 지난달 23일 인천시청 잔디운동장에서 운항개시 기념행사를 열고 응급의료전용헬기의 운항을 시작했다.

응급의료전용헬기는 응급의료장비와 의료진을 갖추고 신속하게 환자를 치료하고 이송하는 하늘 위 응급실이다. 헬기 안에는 혈액검사기와 초음파 진단기, 정맥 주입기 등 전문의료장비가 탑재돼 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구조사나 간호사가 탑승하고 전문장비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전문 응급조치가 이뤄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헬기는 119나 구급대, 의료인 등이 응급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하면 바로 출동한다. 이륙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5분. 출동 10여 분 만에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가 응급처치를 시작한다. 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송하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1시간 내에 이뤄져, 섬에 사는 응급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점차 더 먼 섬까지 확대

그동안 OECD 국가 가운데 공공 응급의료전용헬기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섬이 많은 인천과 전남 목포에 응급의료전용헬기를 운영하기 시작해 기대가 크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응급헬기를 도입한 후 중증 환자의 사망률이 27%, 중증 후유증은 45%로 감소했다.

응급헬기는 8시 반부터 일몰 30분 전까지 운항하며, 야간에는 소방 및 해양경찰청 소속 헬기가 운항을 맡는다. 단 이번엔 운항하는 헬기는 7~8인승 소형이기 때문에 운항 범위가 넓지 않다. 헬기는 길병원에서 반경 60km 이내에 있는 강화군 전역과 옹진군 영흥도·덕적도·소야도, 중구 무의도까지 운항한다. 육지에서 130~230km 가량 멀리 떨어진 섬의 응급환자는 현재처럼 소방 및 해양경찰청의 중형 헬기가 이송한다. 시는 앞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헬기가 다니는 지역을 굴업도, 문갑도, 연평도 등 반경 80~130km 이내의 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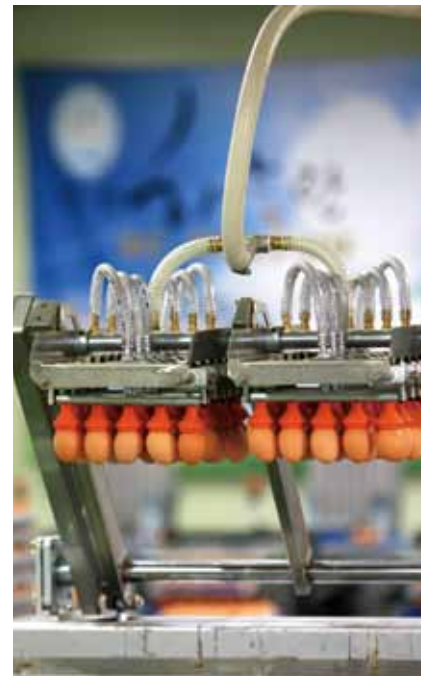
하늘을 나는 응급실이 섬마을과 바다 건너 세상을 하나로 이으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길 기대한다.

응급의료전용헬기 운항 : 출동 지시 ⇒ 병원 출발(의료인력 탑승) ⇒ 현장 도착 ⇒ 응급처치 개시 ⇒ 병원 이송
운항 범위 : 반경 50km 내외, 주간(야간, 원거리 도서는 소방 및 해상소속 헬기 이용) **출동 요청** : 응급헬기 출동 요청자(의료인, 119상황실, 구급대 등, 개인 요청은 불가)
문의 : 시 보건정책과 440-2736

지역 대표 ‘월빙 계란’ 으로 명성

‘인천하늘란’은 인천 우수농산물(Fly)이자 지역특산물이다. 친환경 무항생제 계란인 인천하늘란은 당일 생산해 소비자에게 당일 배송하는 것이 장점이다. 또 철저한 위생 관리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하게 먹을 수 있도록 처리했고, 토종 그대로의 맛과 질 재현에 온 힘을 쏟고 있어 지역 대표 브랜드로 명성을 쌓고 있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인천하늘란은 계란이 시민이 즐겨먹는 대표적인 식품인 만큼 위생, 신선도, 영양면에서는 다른 계란의 품질에 뒤지지 않겠다는 각오다. 2011년 1월 우리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플라이(Fly)마크를 취득했고, 2010년엔 친환경농산물 인증, 하늘란 상표등록으로 우리시를 대표하는 축산물로 탄생했다.

하늘란은 4개의 산란계농장을 하나로 묶은 지역대표 브랜드로 출발해 최첨단 위생시설을 갖추고,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늘란의 위생적인 생산 과정은 이렇다. 4개 산란계농장에서 낳은 알이 매일 오전 집하장으로 모인다. 여기서 모인 계란은 자동 벨트 컨베이어로 옮겨진 후 먼저 사람이 육안으로 깨지거나 미숙란 등 잘못된 계란을 골라낸다. 그런 후 1, 2차 세척을 한 후 계란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오일로 코팅처리한다. 코팅은 닭이 알을 낳을 때 생기는 막과 같은 역할을 한다. 자외선 살균을 한 후 깨진 알, 속이 썩은 알을 걸러내기 위해 불빛에 알을 비치는 검란, 하늘란 이름을 새기는 마킹 등의 순서로 처리한다.

위생처리과정이 다 끝난 후엔 크기별, 무게별로 포장되어 이뤄진 후 소비자에게 배송한다.

인천하늘란은 친환경 무항생제로 1등급 란임을 자랑한다. 또 계란의 생명인 신선도 유지차원에서 재고나 보관 없이 당일배송한다. 이렇게 위생과 안전을 갖춘 하늘란은 하루 4만5천개가 시중으로 나간다. 하늘란의 우수한 품질은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와 자체연구개발인 이뤄낸 결과다.

인천하늘란의 또다른 특징은 컴퓨터로 접속해 프로그램만 다운받으면 계란의 생산부터 출하하는 과정을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게 시스템을 갖췄다는 점이다. 품질과 안전성을 갖춘 하늘란은 인천지역 하나로클럽 및 단위농협 하나로 마트, 인천구치소, 군부대 등에 납품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 인천하늘란 임승철 대표는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판매망을 뚫기가 쉽지 않다”며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영양좋은 하늘란이 들어갔으면 한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문의 : 070-7757-8854

시민이 행복한 ‘희망인천’

우리시가 대형사업 위주의 시책사업에서 탈피, 돈 안 들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과 밀접한 시책을 발굴, 사회적 약자를 보듬자는 취지다. 시는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시민이 좋아하고 반기는 정책을 추진한다. 시가 검토하는 74건의 주요시책 중 시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주요사업의 내용을 소개한다. 사업은 올해 예산을 반영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저소득층 생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빈곤층에게 노후 LPG사용시설을 무료로 고쳐주고(1천15가구) 연탄쿠폰을 지원(1천2백가구)하며, 도시가스요금(2011년 10월~2012년 5월)경감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만 지원하던 중·고등학생 교복비를 복지시설 아동에게까지 확대해 복지시설 청소년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한다.

주거 취약계층에 주택안정 지원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차원에서 정부의 전세 임대주택 입주 보증금을 4년 동안 무이자로 지원하고 향후 자립의지 제고를 위해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시책을 내년 우리시 사업과 향후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제안, 확대한다. 소외계층의 열악한 주거공간 개선차원에서 재활용 인테리어 자재와 녹색제품을 활용한 리모델링 사업을 관내 기업체와 연계해 소외계층 주택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 아동, 여성, 다문화가정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아동과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돕고자 휴면예금 소액보험과 지역 민간복지지원으로 포스코 원&원 사업을 연계한 소액보험 사업과 결연금 지원,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 아동캠프 프로그램, 의료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아동 청소년의 자립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동 양육시설과 우수 중소기업간의 1대1 자매결연으로 이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시는 2010년부터 다문화 가정을 위한 신문 ‘다사랑’을 베트남, 중국어, 영어, 한국어로 발행하고 있다.

전통시장 살리기

매주 수요일을 ‘전통시장 가는날’로 정해 시와 산하기관, 공사, 공단, 학교, 기업체를 대상으로 참여를 유도한다. 시는 내년 하반기까지 전통시장 통합 마일리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1기관 1전통시장 자매결연을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서비스를 관내 대형마트와 지하철 역사 등 여성의 왕래가 잦은 장소로 찾아가는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 일자리 전담 창구를 개설해 취업률을 끌어올릴 예정이며 저소득층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교육 시행 방안을 마련한다. 시의 소통민원콜센터와 연계한 원스톱 일자리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9월 중으로 관내 취업지원 기관과 업무 연계 방안을 마련, 상담 안내서를 제작하고 콜센터 상담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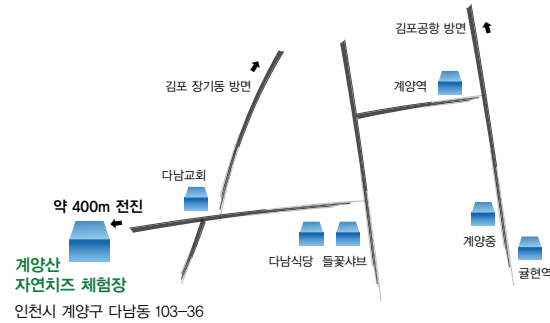
스마트폰 활용, 신속한 쓰레기 수거

여권 민원 처리기간이 시와 구·군별로 차이가 있어 불편이 있어왔는데 구·군의 여권민원 처리기간을 3일로 단축, 통일한다. 무단 쓰레기 처리를 위해 스마트폰이 활용된다. 시 순찰반이 구·군 기동반에 문서를 통보해야 하는 처리과정 때문에 수거 처리가 지연되어 왔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현장사진과 위치도면을 트위터로 구·군으로 즉시 통보하는 U-환경순찰반을 운영한다.

‘목장나들이’ 인천으로 오세요

소에게 여물을 주고, 자연산 치즈를 만들면서 자연과 낭만을 만끽하며 체험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인천에도 생겼다. 계양산 자연치즈 체험장. 목장체험을 위해 굳이 경기도나 강원도로 떠나지 않아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치즈, 피자, 요거트, 아이스크림 만들기로 오감 만족을 느낀다. 이곳은 신기하면서 특별한 체험을 즐기려는 가족단위 나들이객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계양산 자연치즈 체험장은 농업진흥청과 우리시 농업기술센터가 국비를 받아 작년 시설을 조성했고, 올해 5월부터 목장체험을 하고 있다. 이곳 자연치즈체험장은 우유 원액이 좋아 치즈맛이 신선하고, 향이 풍부하다. 아이들과 달리 치즈를 좋아하지 않는 어른들도 치즈의 맛이 고소하고 담백해 ‘마약’처럼 다시 찾게 된다고 입을 모은다.

매일 생산되는 신선한 우유로 만든 치즈를 따뜻한 물에 녹여 짹짹 퍼거나, 가늘게 늘리기 놀이로 체험의 재미를 더한다. 피자만들기는 체험객들이 기대하며 즐거워하는 프로그램. 신선한 치즈와 토핑을 얻어 바삭바삭하게 구워내어 피자맛은 일품이다. 피자를 먹는 체험객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난다. 피자과 함께 제공되는 요거트는 씹씹하면서도 고소한 맛으로 체험객들의 입맛을 당긴다.

피자 체험이 끝나면 아이스크림 만들기에 도전한다. 작은 그릇에 얼음을 깔고 그위에 우유와 소금을 넣고 계속 저으면 단백한 맛의 아이스크림이 탄생한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피자과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만드는 재미에 빠져든다.

자연치즈체험장은 목장체험 외에도 계양산을 배경으로

나무와 꽃이 수목원처럼 잘 조성되어 있어 다양한 자연 학습도 가능하다. 농원에 심어져 있는 복숭아, 자두, 사과, 배 등의 과실수를 보며 나무와 과일 이름을 알아가는 재미도 쏠쏠하고, 팡팡놀이구구는 목장체험의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이곳 체험장은 다른 곳과 달리 시간대별로 체험객을 받지 않고 하루 한팀만 받아 체험하러 온 가족이 목장을 충분히 즐기고, 보고 갈 수 있도록 시간을 넉넉하게 제공하고 있다. 부모들은 큰 나무아래 쉼터에서 쉬면서 아이들이 목장에서 뛰어놀거나 소에게 여물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목장을 아기자기하게 꾸몄다. 그야말로 가족단위 체험객들이 하루 편히 쉬는 휴식공간인 셈이다.

치즈, 피자, 요거트, 아이스크림 등 전 체험을 하는데 드는 시간은 2시간 정도. 소여물주기를 하고나면 기념촬영도 가능하다. 나머지 시간은 목장을 돌면서 산책도 하고 자연을 즐기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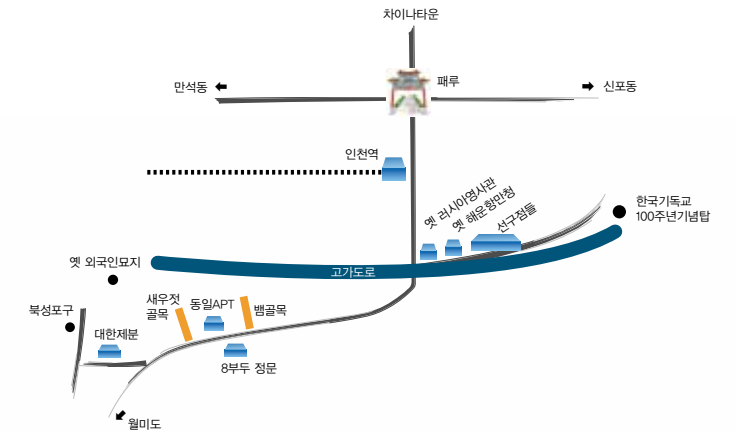
자연치즈체험장을 이용하려면 1주일 전에 예약해야 한다. 목장에서 체험을 위해 준비해야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체험비용은 1인당 2만원, 유치원이나 단체는 1만2천원이다.

문의 : 544-7272, 홈페이지 www.치즈체험.kr

응봉산 줄기가 내려 달리다 바다와 맞닿았다. 그 땅은 ‘곶’이 되어 고기잡이배들의 안식처인 포구가 되었다. 도크가 생기기 전에는 바다 물결이 경인선 철도가 끝나는 지점 바로 밑까지 밀려들어왔다. 인천역 뒷편의 복성동은 바닷사람과 바다물건이 모여드는 왁자지껄한 선창가였다. 인천의 섬을 오가는 객선부두와 물위에 뜨는 잔교(棧橋)가 있었고 앞바다에서 걸어 올린 생선을 경매하는 강시장 공판장이 있었다. 현재의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탑이 서있는 곳까지가 우리가 말하는 ‘제물포(濟物浦)’였다. 도크공사로 1973년 부두시설이 새 바닷가 연안부두로 이전했다. 부두는 옮겨갔지만 아직도 그곳에는 비릿한 선창가의 흔적이 남아있다.



인천역 화물구역에 있는 오래된 창고.
이를 배경으로 드라마 '육남매'를 촬영했다.



새우젓 골목과 뱀 골목

인천항 8부두 정문 건너에 작은 동네가 있다. 큰길에서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곳을 새우젓 골목이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인천 앞바다에서 잡은 새우를 소금에 절여 보관하던 창고와 가게들이 있었다. 사시사철 골목 이곳저곳에 새우젓 독이 일렬로 사열하듯 세워져 있거나 빈 통으로 나뒹굴었다. 김장철이 되면 사람들은 양동이 하나씩 들고 열차를 타고 오거나 자유공원 응봉산 고개를 지게 지고 넘어왔다. 파는 이와 사는 이의 흥정소리와 악다구니가 골목 밖으로 넘쳐나갔다. 골목에는 새우젓뿐만 아니라 건어물 가게들도 함께 있었다. 부두가 사라지면서 새우젓도 함께 떠나버렸다. 빈 창고와 가게에 인근 노동자와 도시 빈민들이 들어와 구들을 놓았다. 쪽방촌이 되었다.

새우젓 골목 옆에는 하얀 소금이 산처럼 쌓였다. 인근 섬과 주안염전에서 들어 온 소금이었다. 소금은 가마나 포대에 포장돼 전국 각지로 실려 나갔다. 소금을 배에서 부리던 그 앞의 부두를 사람들은 한염부두라고 불렀다. 소금공장이 떠나고 그 자리에 5층짜리 동아아파트 두동이 들어섰다. 옥상에 올라가 보았다. 새우젓 골목이 한눈에 들어왔다. 반듯한 통로와 지붕 높은 집들이 일반 골목과는 분명 달랐다. 얼마 전 낡은 외벽에 충천연색 그림이 그려졌다. 마치 팔순 노파의 얼굴에 색조화장을 질게 한 모습이다.

“난장이었지. 길바닥은 늘 물기로 진창이었고 지나다니다 물건끼리 사람끼리 부딪히고, 바다 끼고 사는 사람들이 한테 모이다보니 자주 싸움박질하고... 그게 사람 사는 모습이었지. 그때가 많이 그리워.” 아파트 마당 그늘 평상에서 쉬고 있는 박치국(75) 할아버지가 잠시 옛 모습을 회상한다. 그는 평안도에서 피난 나와 북성동에 거주하면서 조그만 배의 기관장으로 일하며 늘 바다를 끼고 살았다.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옛 모습의 조각 하나를 톡 던진다. “저쪽에 한번 가 봐요. 그 골목이 뱀 골목이요. 뱀 장수들이 야한 얘기를 곁들이면서 뱀과 약을 팔았어.” 아파트 담장을 끼고 도니 뱀처럼 살짝 휘어진 인적이 끊긴 골목이 나왔다. 주저앉은 집, 사람 살지 않는 집, 바람에 나뒹구는 쓰레기들. 이제 그곳은 뱀이 나올 만큼 스산하고 퇴락했다. 서둘러 돌아 나오려는데 뒤에서 뱀장수의 쉼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애들은 가라”



꽃게와 새우를 사기 위해 서둘러 북성포구로 향하는 사람들

동아아파트에서 내려다본 새우젓 골목. 일반 구도심 골목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그늘 등 배에서 사용하는 어구를 팔던 선구점(船具店). 고가 밑까지 바닷물이 밀려들어왔었다.

질펀했던 선창가 풍경

선창가에는 노점상들도 적지 않았다. 이들 중에는 매일 경인선 열차를 타고 서울로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큰 함지박에 얼음과 함께 물 좋은 생선을 담아 인천역에서 탑승했다. 출근 시간대의 열차 안은 생선 냄새가 진동했다. 게다가 창문을 열수 없는 겨울철이면 승객들은 대놓고 말은 못해도 참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들이 노랑진역에서 내리고 나서도 한참 동안 열차 안은 비린내가 배어있었다.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풍경으로 한 시대를 살아간 이 땅의 억척스러운 왁사지매들의 모습이었다.

선창가 그림에서 빠질 수 없는 풍경이 주점과 색시집들이다. 갈매기의 호위를 받고 만선 고기잡이배들이 들어오면 부두는 아연 화색이 돈다. 술집 창문 넘어 젓가락 두드리는 소리와 교태 소리가 밤새 흘러 넘쳤다. 섬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 때문에 부두 주변에는 여인숙 등 숙박업소가 늘 성업이었다. 당시 가장 유명했던 집은 차이나타운에 있던 황해여관이다. 사람이 밀려들어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호시절도 있었다. 지금은 여관이 헐리고 그 자리에 중국음식점 ‘청관’이 들어섰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택시기사에게 청관가자고 하면 잘 몰라도 황해여관 있던 곳 가자하면 그 앞에 세워줄 정도였다.

선창가 흔적이 가장 뚜렷하게 남은 곳은 파라다이스호텔(옛 올림푸스) 밑 만석고가도로 옆이다. 바닷물이 드나들던 석축 위에 1958년경에 설립된 해무청사(인천해운항만청)가 있었다. 건축미가 뛰어난 격자무늬의 이 건물은 서울올림픽공원 정문 설계자 김중업씨의 작품이다. 이후 안타깝게도 이 건물은 헐리고 다시 짓고 93년 국립식물검역소로 활용되었다. 지금은 바다와 관계 없는 업체가 들어와 있다. 그 바로 옆에는 이국풍의 러시아 인천영사관이 있었다. 함포사격에도 살아남았던 이 건물은 74년에 철거되고 만다.



일제강점기 때 인천에서 두 채 밖에 없었던 목조 3층 건물. 80년 가까이 된 건물로 한때 객주집으로 사용됐다.



일본풍의 선구점 창문틀

바다가 아직 그곳에 있다

오후 4시경 어디서 나타났는지 양동이를 들거나 캐리어를 끄는 중년여성들의 모습이 부쩍 많이 된다. 그들의 발걸음은 급하다. “어디들 가세요?” “포구에 가는 거요. 꽃게 사러.” 그들의 뒤를 따라갔다. 대한제분공장 옆길로 바다에 다다르자 이미 보파리 하나씩 챙겨든 몇몇 무리들이 포구를 등지고 나온다. 초입부터 사람들과 자동차들이 뒤엉켜 번잡하고 소란하다. 바로 옆에서 낚시줄을 두리운 채 한가롭게 바다에 시선을 둔 강태공들이 모습이 인상적이다.

포구에는 20여 척의 고기잡이배들이 닻을 내려놓고 서로의 어깨를 꼭 낀 채 정박해 있다. 갑판 위는 작은 어시장으로 변했다. 꽃게, 새우를 비롯해 갖가지 생물들이 물 밖에서 발버둥친다. 사람들은 배로 내려가 어부들과 직거래를 한다. 고기 한 점 얻어먹기 위해 어디서부터 쫓아왔는지 갈매기는 공중에서 절규한다. 그 소리가 소음에 가깝다. 덩달아 흥정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커진다. 난전이다. 그러길 한 시간. 거래가 끝나면서 사람들은 포구를 떠나고 갈매기마저 제 갈 길로 가버리자 바다는 이내

조용해졌다. 다시 강태공들의 세상이 되었다.

북성동 1가 1번지, 송월동에서 만석동으로 넘어가는 육교로 철길을 건너 만석동 우체국 옆길 동네를 지나가면 옛 외국인 묘지 자리가 나온다. 응봉산 줄기라고 할 수 있는 땅이 바다 끝에 멈추면서 구릉처럼 조금 불쑥 솟았다. 개항 이후, 주로 인천에 거주하다 사망한 서양 상인, 선교사, 외교관 가족들의 유해를 안치하려고 조성한 묘역이다. 1887년 7월에 첫 시신이 매장되었다. 뒤를 이어 상인 타운센드, 헤르만 행켈, 의사 랜디스 박사, 청국 외교관이었던 오례당 같은 인물들이 이곳에 잠들었다. 묘는 1965년 연수구 청학동으로 이전했다. 이후 묘역은 철도 부지로 편입되었고 지금은 높은 담장 안으로 둘러쳐져 고작 한 움큼쯤 되는 붉은 언덕에 어지럽게 줄기를 뻗은 아카시아 몇 그루만이 한에 사무치는 듯 고요 속에 기울어져 있다.

처음 묘지를 바닷가에 썼던 것은 언젠가는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묻히리라 간절한 바람이었리라. 옛 묘역에 서니 그 영혼들이 바닷바람 따라 제 고국으로 돌아갔는지 문득 궁금해진다.

100년 가까이 된 부둣가 객주집

이 주변에는 아직도 그물을 비롯해 배에서 쓰는 어구들을 파는 선구점(船具店)들이 있다. 한눈에 봐도 세월의 더께가 내려앉은 빨간 벽돌집 앞에 섰다. 이쪽저쪽 사진을 찍고 있는데 안주인이 나왔다. “왜 찍어요?” “아, 좀 오래된 것 같아서요” “다 낡은 거 뭐 좋다고…” 다소 못마땅했지만 안주인은 바로 집의 이력을 술술 풀어준다. 이 집은 6·25전쟁이 끝나자마자 시아버지가 지금의 아트플랫폼 근처 폭격 맞은 창고 벽돌을 얻어다가 지은 집이다. 현재 4대에 걸쳐 사는 이 집은 창문틀 양식이 일제강점기 때의 그것과 흡사하다. 시아버지가 일러 준 것에 의하면 송월동에 있는 옛 비누공장 애경사의 벽돌과 재질이 같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림잡아 벽돌의 나이는 7,80년은 족히 났다는 얘기다.

몇 집 건너가면 3층짜리 회색건물이 있다. 이 집의 사연은 더 드라마틱하다. “일제 대정시대에 지은 건물이에요” “대정시대요?” 스마트폰으로 바로 검색해 보았다. 1911년부터 1924년까지다. 그렇다면 길면 100년 짧아도 87년이다. 현재 5대에 걸쳐 살고 있는 이 집의 주인은 유광준(72)씨다. 겉으로 보기에는 콘크리트 건물 같은데 목조건물이라한다. “인천에 목조 3층집은 옛날 향도백화점 옆집하고 우리집 밖에 없었어요.” 3층까지 세워진 나무기둥들이 이 집을 지탱하고 있다. 짙바람 때문인지 벌레가 없어서 지금도 썩은 데가 한군데도 없다. 벽은 대나무로 엮고 짚을 섞은 진흙을 엉겨 만들었다. 92년도 작은 화재가 난 후 슬레이트벽으로 덮었다. 이 집은 원래 ‘객주(客主)’였다. 부두 화물이나 생선의 매매를 주선하거나 위탁 판매를 하던 집이다. 나중에는 잠시 다다미가 깔린 공동주택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 ① 해안 끝에 있던 외국인 묘지. 지금은 청학동으로 이전하고 빈 구릉지로 남아있다.
- ② 북성포구에서 세월을 누는 강태공들.
- ③ 포구에 닻을 내린 어선에서는 한바탕 난전이 선다.





맑은 눈에 비친 행복

김미혜 아동문학가

눈이 맑은 소녀를 앞에 두고 있는 듯하다. 62년생, 오십 가까운 생을 살아 온 어른이 어찌 이렇듯 순수할 수 있을까. 때 묻지 않은 세상에서 똑 떨어진 듯한 사람, 아동문학가 김미혜. 그녀가 부럽기도 또 남다른 관조로 이야기를 끌어내는 머릿속이 궁금하기도 하다.

“나는 단순한 사람이에요. 자연 속에서 노는 것이 즐겁고, 일상에서도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 게 편해요. 계산하지 않으면 결국 나에게 더 큰 것이 온다는 진리를 터득했다면, 이것이 오히려 계산적인 걸까요?”

김미혜는 2000년 등단한 이래 특유의 낙천적이고 섬세한 감성으로 아이들을 따뜻하게 감싸는 글을 써왔다. 세상도 이를 인정해 2006년 오늘의 동시문학상을 지난해에는 라가치상(Ragazzi Award)을 수상했다. 라가치상은 세계 최대 규모인 이탈리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서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출간한 어린이책 가운데 최고의 아동도서에 주어지는 상이다.

“산에 들에 꽃 피었다단다, 애들아 꽃맛이 가자 / 노른자 터진 개망초, 머리 빗은 금낭화, 황금빛 눈물 애기똥풀, 햇빛 담은 접시꽃, 봄 발자국 진달래, 발꿈치 드는 채송화 / 꽃이 피었다단다, 우리 함께 꽃마중 가자.’ 동시 그림책 <꽃마중> 중에서.

김미혜의 작품은 삶의 공간과 닿아있다. 그녀는 살아가면서 겪는 사사롭지만 자신에게는 소중한 이야기를 작품의 소재로 끌어 온다. 자연 속으로 걸어 들어가 나무, 꽃, 벌레, 새와 함께 놀고 부평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이웃과 살 부비며 살아가는 소소한 날들이다.

“마음먹고 살피보기보다는 이미 일상 속에 있는 것이 글을 쓰는 모티브가 돼요. 문득 생각해보니 의미 있었다 하는. 삶에서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늘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요.”

그녀는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에서 ‘새로운 발견’을 하려고 글을 쓴다. 그리고 아이들이 책을 읽고 행복하길 바라며, 자신도 즐겁게 펜을 잡고 또 글에 지지 않으려 노력한다. 그것이 맑은 눈의 그녀가 품은 소망이자 믿음이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나는 할머니 연극배우다

학산문화원 실버연극단 어르신 윤순자

윤순자 어르신(76)은 학산문화원의 최고령 배우다. 격동의 인생 역정을 헤쳐 온 윤 할머니에게 연극은 자신이 걸어 온 삶의 결정체이자, 현재를 살고 있는 어르신 세대가 겪은 인생의 이야기다. 연극 속 윤 할머니는 바람난 남편 때문에 애들 데리고 죽도록 고생만 하는 아내, 딸에게 얹혀 살면서 온갖 구박을 당하는 홀어머니, 장터에서 장사하는 가난한 할머니 역할을 실감나게 연기해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고 공감을 이끌어 낸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100만송이 장미'. 시집 안 간 노처녀 딸하고 같이 사는 홀어머니 역할이었다. '드라이크리닝을 해야 할 빨래를 물빨래했다'고 딸에게 구박받으며 서럽게 사는 역이었지만 설움 당하는 연기를 잘 소화해 관객들의 갈채를 받았다.

윤 할머니는 독립영화 '파마'에도 출연했다. 돈이 없어 아들을 장가 못 보낸 가난한 할머니역이었다. 재개발 보상금으로 베트남 아가씨를 데려와 아들과 결혼시켰으나 딸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베트남 며느리를 못살게 구는 독한 시어머니 역이었는데, 작품 평가가 좋아 영화계로부터 러브콜을 받기도 했다.

지금은 관객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관객을 울고, 웃게 만드는 베테랑 연극인이지만 연극을 하기 전 40년은 평범한 전업주부였다. 그런 할머니가 연극을 접한 것은 5년 전 학산문화원 실버연극단에 응모하면서다. 남들은 인생을 정리하고, 관조할 나이인 72세에 연극에 도전했다.

안하던 일이라 두렵고, 대사를 외우는 것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전성기에 도전한다는 결심으로 대사를 100번씩 외우고 연기를 배워 현재까지 50편 넘게 무대에 올랐다.

학산문화원 실버연극단은 양로원, 요양원 등을 순회하면서 공연한다. 몸이 아파 고생하고, 힘든 노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비슷한 나이대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지만 정작 위로 받는 건 할머니 자신이다. 자신보다 어린나이에 중풍, 치매로 꼼짝없이 누워있거나 병치레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아직도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한다.

슬프거나 나빴던 것은 기억하지 않으려 한다는 윤 할머니는 연극 때문에 늙지않고 건강하게 사는 자신의 삶을 축복하고 기뻐하며 오늘도 무대에 오른다.

글 이용남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 SUN | MON | TUE | WEN | THU | FRI | SAT | | | | | | | | | | | | | | | | | |
|---|--|--|--|---|--|--|---|--|--|--|---|--|--|--|--|--|---|--|--|---|---|---|--|
| <div>10.30</div> <div>엑스 타이브 쇼 파티메인저 장클로드 인천총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30분 1층 R석 4만5천원, 2층 S석 3만5천원 ☎장라미포 1566-6551</div> <div>제4회 인천제즈앙상블 정기주회 인천총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 초대 인천제즈앙상블 ☎018-332-8911</div> <div>장예환이 만드는 음악展[Le petit Piano]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5시 R석 7만7천원, S석 6만6천원 ☎500-2000</div> <div>어린이 애니메이션 '아빠 만마' 오후 2시 30분, 5시 30분 영화공간 주안 / 무료 ☎427-6777</div> | <div>3</div> <div>4</div> <div>10.4 남북정상선언 4주년 국제합창단의 인천총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 초대 국제합창단 ☎440-3241</div> <div>주민시내마티크 '홍성탈출' 오후 2시 30분, 5시 30분 영화공간 주안 무료 ☎427-6777</div> | <div>5</div> <div>제14회 인천광역시 장애인인턴시니어예술제 인천총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초대 인천 장애인복지시설협회 ☎881-5301</div> <div>국악기 재현공연 '밀강탈장' 인천총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전석 1만5천원 한국예술경영협회 ☎811-0550</div> <div>주민시내마티크 '홍성탈출 : 지하도시의 음모' 오후 2시 30분, 5시 30분 영화공간 주안 무료 ☎427-6777</div> | <div>6</div> <div>국악기 재현공연 '밀강탈장' 인천총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전석 1만5천원 한국예술경영협회 ☎811-0550</div> <div>주민시내마티크 '홍성탈출 : 제3의 인류' 오후 2시 30분, 5시 30분 영화공간 주안 무료 ☎427-6777</div> | <div>7</div> <div>무용문화재단전승을 위한 무용문화재단축제 인천총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초대 문화재단 ☎811-0550</div> <div>주민시내마티크 '홍성탈출 : 노예들의 반란' 오후 2시 30분, 5시 30분 영화공간 주안 무료 ☎427-6777</div> <div>창작국악관악사 '고래야 음악살롱'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전석 3천원 ☎505-5895</div> | <div>8</div> <div>뮤지컬 <메노조조> 인천총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인천총합예술문화회관 ☎1588-2341</div> <div>무용문화재단전승을 위한 무용문화재단축제 인천총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7시 / 초대 문화재단 ☎460-3504</div> <div>토요상생무대 인천시립무용단의 <연희> 인천총합예술문화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총합예술문화회관 ☎420-2744</div> <div>해성이 있는 발레 <돈키호테> 오후 5시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나타 인천해성고음악문화회관 2층 씨디극장 오후 3시, 6시 6천원, 학생 무료 ☎760-3455</div> <div>어린이 애니메이션 '만능수리공 매디 : 우라노 스타' 오후 2시 30분, 5시 30분 영화공간 주안 / 무료 ☎427-6777</div> | <div>9</div> <div>뮤지컬 <메노조조> 인천총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인천총합예술문화회관 ☎1588-2341</div> <div>무용문화재단전승을 위한 무용문화재단축제 인천총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7시 / 초대 문화재단 ☎460-3504</div> <div>일모곡악상생공연 '일수' 노들마치 인천총합예술문화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무료 인천음악사 ☎518-1511</div> <div>어린이 애니메이션 '더 파이팅' 오후 2시 30분, 5시 30분 영화공간 주안 / 무료 ☎427-6777</div> | <div>10</div> <div>11</div> <div>2011 오페라발라콘서트 인천총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원 (사)인전음악협회 ☎873-7772</div> <div>무용문화재 전승을 위한 무용문화재단축제 인천총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초대 문화재단 ☎460-3504</div> <div>주민시내마티크 '홍성탈출 : 최후의 생존자' 오후 2시 30분, 5시 30분 영화공간 주안 무료 ☎427-6777</div> | <div>12</div> <div>인천시내마티크 <로망자관 시니어> 오후 2시 30분, 5시 30분 영화공간 주안 무료 ☎427-6777</div> | <div>13</div> <div>주민시내마티크 '메트로닉스 리모트드' 오후 2시 30분, 5시 30분 영화공간 주안 무료 ☎427-6777</div> | <div>14</div> <div>제47회 인천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 인천총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초대 문화재단 ☎440-2503</div> <div>뮤지컬 <메노조조> 음악극<왕자를 찾아라> 인천총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원 2011메트로닉스음악축제 ☎1588-2341</div> <div>주민시내마티크 '메트로닉스 리틀루신' 오후 2시 30분, 5시 30분 영화공간 주안 무료 ☎427-6777</div> <div>클래식 속의 연극 '피아노포르테'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 전석 3천원 ☎505-5895</div> | <div>15</div> <div>뮤지컬 <메노조조> <왕자를 찾아라> 인천총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6시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원 2011메트로닉스음악축제 ☎1588-2341</div> <div>웹스태의 '메트로닉스' 인천해성고음악문화회관 2층 씨디극장 오후 4시 6천원, 학생 무료 ☎760-3455</div> | <div>16</div> <div>발레 '가젤' 인천총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6시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총가운다예술 ☎7041-07-0832</div> <div>일모곡악상생공연 '일수' 강태 사자소극단전용회 인천총합예술문화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음악사 ☎518-1511</div> <div>어린이 애니메이션 '도라에몽 : 친구의 마계대모험' 오후 2시 30분, 5시 30분 영화공간 주안 / 무료 ☎427-6777</div> | <div>17</div> <div>18</div> <div>인전음악사 인천총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초대 인한스 ☎010-5332-1984</div> <div>주민시내마티크 '클래식의 자주' 오후 2시 30분, 5시 30분 영화공간 주안 무료 ☎427-6777</div> | <div>19</div> <div>뮤지컬 <메노조조> <박정자! 부르는 어머니의 노래> 인천총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2011메트로닉스음악축제 ☎1588-2341</div> <div>캐피콘서트Ⅶ 소프라노 김수연의 오페라 여행 인천총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 전석 1만원 인천80조 ☎420-2027-8</div> <div>주민시내마티크 '캐피콘의 해적 : 양자의 함' 오후 2시 30분, 5시 30분 영화공간 주안 / 무료 ☎427-6777</div> | <div>20</div> <div>뮤지컬 <메노조조> <박정자! 부르는 어머니의 노래> 인천총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2011메트로닉스음악축제 ☎1588-2341</div> <div>주민시내마티크 '캐피콘의 해적 : 세상의 끝에서' 오후 2시 30분, 5시 30분 영화공간 주안 무료 ☎427-6777</div> | <div>21</div> <div>제47회 노인양육주간 인천총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무료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426-9792</div> <div>주민시내마티크 '터미네이터' 오후 2시 30분, 5시 30분 영화공간 주안 무료 ☎427-6777</div> | <div>22</div> <div>제11회 청소년문화예술경연대회 - 본선 인천총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초대 청소년문화진흥센터 ☎833-8037-8</div> | <div>23</div> <div>송도청소반교향악단 제6회 정기연주회 인천총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 초대 송도청소반교향악단 ☎816-7257</div> <div>일모곡악상생공연 '일수' 행동공연 연마진단 The 편대 인천총합예술문화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음악사 ☎518-1511</div> <div>어린이 애니메이션 '가짜의 사자왕사' 오후 2시 30분, 5시 30분 영화공간 주안 무료 ☎427-6777</div> | <div>24</div> <div>25</div> <div>인한스 창간 8주년 기념 축하공연회 인천총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6시 30분 초대 인한스 ☎431-2580</div> <div>주민시내마티크 '킹덤' 오후 2시 30분, 5시 30분 영화공간 주안 무료 ☎427-6777</div> | <div>26</div> <div>창설60주년기념 공연공연주최 인천총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초대 ☎042552-4871 ~개봉대근자월단~ 박덕상무용단창작무용 '세한도II' 오후 7시 30분 초대 박덕상무용단 ☎043-233-2756</div> <div>주민시내마티크 '블레이드 러너' 오후 2시 30분, 5시 30분 영화공간 주안 무료 ☎427-6777</div> | <div>27</div> <div>28</div> <div>인전장애인무가진 인천총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원 (사)인전무가협회 ☎438-2004</div> <div>뮤직 국악 'A-JACK 투드윅의 무한질주' 오후 7시 부평문화사랑방 전석 3천원 ☎505-5895</div> | <div>28</div> <div>2011 인한아트가진 인천총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원 (사)인한아트가협회 ☎438-2004</div> <div>유진 국악 'A-JACK 투드윅의 무한질주' 오후 7시 부평문화사랑방 전석 3천원 ☎505-5895</div> | <div>29</div> <div>엑스 타이브 쇼 파티메인저 장클로드 인천총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11시, 오후 2시, 4시 30분 R석 4만5천원, S석 3만5천원 ☎장라미포 1566-6551</div> <div>경인음악교향전 인천총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 전석 1만원 ☎(사)인전무가협438-2004</div> <div>2011창간식 문화대축제 (상상노란 동아리 발표회) 인천총합예술문화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2시 / 무료 아동청소년과 ☎440-2846</div> <div>장재형이 만드는 음악展[Le petit Piano]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6시 R석 7만7천원, S석 6만6천원 ☎500-2000</div> |

10월의 展

10월 1일~10월 30일
10월 25일~10월 30일

2011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 인천총합문화예술회관 전시장
인천 문화회 협회전 / 인천해성고음악문화회관 기존갤러리



해설이 있는 발레 <돈키호테>
일시 8일 오후 5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티켓 R석 2만원 / S석 1만5천원 / A석 1만원(시아장예석)
문의 500-2000



시립예술단 공연
<인천시립교향악단 브런치 콘서트>
일시 12일(수) 오전 11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시립예술단 공연 <인천시립교향악단 브런치 콘서트>

인천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이자 KBS 열린음악회 클래식 담당 지휘자로 친숙한 이경구 부지휘자의 친절한 해설과 함께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싱그러운 오전, 맛있는 빵과 향긋한 커피를 곁들인 브런치 음악회로 여유로운 하루를 시작해도 좋을 듯 하다.

정재형이 만드는 음악회 <Le petit Piano>

특별한 기교 없이도 사람들을 웃음 짓게 만드는 남자. 이번 공연에서 정재형은 특유의 음악 색깔과 역량으로 그의 앨범 <Le Petit Piano르쁘띠 피아노> 전곡을 연주하고 히트곡 일부를 노래한다. 여기에 첼로와 탱고의 추억악기인 반도네온의 선율이 더해져 격렬하면서도 아름답고, 장중하면서도 낭만적인 음악이 시월의 밤을 촉촉히 적신다.

해설이 있는 발레 <돈키호테>

유쾌, 상쾌, 발랄한 희극발레의 정수를 해설과 함께 만난다. <돈키호테>는 260년 넘게 정통 희극 발레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명작으로 유니버설발레단의 장기인 화려함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세르반테스의 희극 소설 <돈키호테>는 1605년 에스파냐에서 유행하던 기사 이야기를 패러디한 작품.



정재형이 만드는 음악회 <Le petit Piano>
일시 29일(토)~30일(일)
토요일 오후 6시 / 일요일 오후 5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티켓 R석 7만7천원 S석 6만6천원
문의 500-2000

인천&아츠 커피콘서트Ⅶ
<소프라노 김수연의 오페라 여행>
일시 19일(수) 오후 2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전석 1만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기획 공연 <메노포즈>
일시 8일(토)~9일(일) 오후 3시, 6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인천&아츠 커피콘서트Ⅶ <소프라노 김수연의 오페라 여행>

김수연은 타고난 미성과 섬세한 감정표현, 그리고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화려한 테크닉을 가진 콜로라투라(가장 화려한 고음을 가장 고난도의 가창을 기술적으로 구사하는 창법) 소프라노다. 크로스오버앨범 <Angela>로 팝페라 시장에 화려하게 데뷔한 그녀의 천사같이 아름답고 순수한 감성을 느끼는 시간이 될 것이다.

기획 공연 <메노포즈>

2005년 초연 이후 6년 동안 흥런 중인 뮤지컬 <메노포즈>가 인천관객들을 찾아온다. 중년 여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공연임과 동시에 내로라하는 여배우들의 워너비 뮤지컬인 <메노포즈! '폐경' 또는 '폐경기' 라는 다소 우울한 뜻의 이 단어를 유쾌하고 코믹하게 풀어낸 이번 공연은 관객들에게 배꼽 빠지는 재미와 코끝이 찡한 감동을 전한다. 특히 '한물간 연속극 배우' 역할을 맡아 열연한 혜은이와 히로인 이영자는 이번 공연에도 등장하여 그녀들만의 무기인 화려한 애드립과 능청스러운 연기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우연히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만난 네 명의 중년 여성이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당당하고 새롭게 태어날 것을 다짐하는 뮤지컬 <메노포즈>로 인해, 진짜 여자가 되는 즐거운 마법에 걸려 보기 바란다.

풍성한 가을 축제 한마당

온 세상이 탐스럽게 무르익어 마음도 넉넉해지는 계절, 인천에서는 축제가 열린다. 볼거리, 놀거리, 즐거움이 넘치는 가을축제 속으로.

소래야 놀자 '소래포구축제'

푸른 바다와 역동적인 사람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소래포구축제는 이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바다축제로 자리 잡았다. 축제에는 풍어제를 시작으로 페레이드, 시민이 함께하는 퍼포먼스, 창작극, 다문화 축제, 불꽃쇼에 이르기까지 화려한 행사가 풍성하게 열린다.

일시 13일(목)~16(일) | 장소 소래포구 일원
문의 소래포구축제추진위원회 468-1712

한민족의 氣를 모아 '강화 개천대축제'

우리민족의 정기가 솟구치는 생기처(生氣處) 마니산에서 펼쳐진다. 기 체험을 비롯해 무도 시범 및 전통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우리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활기찬 기운을 얻게 한다.

일시 1일(토)~3일(월) | 장소 강화도 화도면 마니산 상설공연장 및 일원
문의 강화군 문화예술과 930-3623

청자 빚던 고려시대 속으로 '경서동 녹청자축제'

서구에는 고려시대에 녹청자를 만들었던 가마터, 인천녹청자도요지(국가사적 211호)가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뜻을 기리어 녹청자축제가 열린다. 축제에는 지역작가들이 참여하는 녹청자 기획전시를 비롯해 도자기 만들기 체험, 세미나 등이 열린다.

일시 8일(토)~11일(화) | 장소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일원
문의 서구청 560-4343



역사의 울림, 어울림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강화도는 민족 위기의 순간에 외세에 맞서는 보루 역할을 한 의미 깊은 곳이다. 이 같은 역사를 바로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전등사와 주변 삼랑성에서 축제가 열린다. 강화풍경화전과 저어새사진전 등 전시와 다도·목공예·화문석 등 전통 체험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일시 8일(토)~16일(일) | 장소 강화 전등사 삼랑성 일원
문의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조직위원회 937-0125

바다향이 물씬 '강화새우젓축제'

새우젓은 가운데 가을 김장에 쓰이는 추젓의 75~100%가 강화도 연안에서 생산된다. 김장을 앞두고 외포항 일대에서 강화도 새우젓축제가 열린다. 축제에는 가요제, 댄스경연대회, 인기가수의 초청공연 등 공연과 갯벌장어잡기, 망둥이낚시 등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일시 7일(금)~10일(월) | 장소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정포항)
문의 새우젓축제추진위원회 932-9337

※ 주요 행사 및 일정은 55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다짐



10·4 남북정상선언 4주년 기념식과 국제학술회의가 4일, 5일 양일간 우리시에서 열린다. 행사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미래상을 제시한 10·4 남북정상선언을 기념하고,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의 역사적 의미를 재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10·4 선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007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해 합의해 공표했다.

이달 4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송영길 시장과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기념사를 하며 이희호 여사도 참석해 격려사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송 시장과 권양숙 여사가 함께 봉하쌀과 강화쌀을 '북한 수재민 돕기 쌀 보내기 운동본부'에 기증하는 '평화의 쌀 전달식'도 진행한다. 이어 참가자들이 현 정부에 10·4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낭독할 예정이다.

국제학술회의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서해 평화의 섬'을 주제로 4개 세션과 1개 특별 세션으로 나뉘져 4~5일간 진행한다. 리온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국장, 양시위 중국 외교부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등이 발제·토론자로 참석하며, 연평도 주민 대표가 참석하는 토론 세션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시청 중앙홀에서 '분쟁의 바다 / 평화의 바다展'을 열어 평화에 대한 염원을 노래한다. 3일에는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한국대학생 3on3 통일 농구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으로 분단의 아픔을 겪은 인천에서 열려 의미를 더하고 있다.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 개최와 인천~개성 간 서해평화벨트 형성 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삶이 흐르는 책방에 깃든 사람들

글 객현숙 배다리 아벌서점 대표



책방에 앉아 조봉암 선생의 글을 보다가 조우성 시인의 '仁川'이라는 시가 생각났다. 시인은 끝도 시작도 보이지 않는 황량한 갯벌에 휘몰아치는 바람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인천을 말했다.

조봉암 선생의 자서전 <내가 걸어온 길>에서 읽는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절대 절명으로 절박한 부대깎 속에서 텃 칠하기를 거부하며 얼이 되어간 어른의 기록이었다. 나라가 생애 길이 되어버린 선생의 저서 '우리의 당면과업'은 지금 읽어도 시대를 넘어선 경전이다.

이들 글에는 하나하나 그렇게 되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실과 그 상황에서 벗어나갈 길을 말했다. 작은 생각의 염려와 아집에서 깨어나 나라 환경 속에 달구어진 민중의 힘을 큰 자산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고 했다.

책방에 자주 들르시는 70대 손님과 대화 중에 박경리 선생이 배다리에서 살았고 헌책방까지 했다고 하니까, 통영분이 인천에 살았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다면, 그분의 '김 약국 집 딸들'은 아마 아버님 얘기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직면한 일이 아니면 그렇게 실감나게 사람들을 감동 시킬 수가 없는 거라고, 꾸며내고 텃 부친 글은 흥미는 줄지 모르지만 마음속 깊은 궁정은 끌어낼 수가 없는 것이라 했다.

최근 내가 읽은 소설 <전장과 시장>에서 서술된 절박한 사정들과 등장되는 인천 k동(금곡동), 고물상, 굴다리, 시장 등의 이름에서 배다리를 읽을 수 있었다.

책 속 비밀을 알아가는 대화는 모든 글들이 역사의 기록인 것을 새삼 실감나게 한다. 책방에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을 자신의 생각 위에 두고 혼신을 다해 사실을 글로 살려낸 작가들의 책이 있다. 또한 사실을 바르게 보려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책방을 통해 들고 날며 소리 없는 대화로 깊은 호흡을 한다. 생각으로 보지 못하는 모든 것에 대한 앎이 그리워질 때, 책방에 들러 생각 너머에 자신을 만날 책 한 권 만나는 행은 또한 책방에서의 일상이다.

"책의 저자들은 바보예요. 알고 있는 건 몽땅 다 기록한 다니까요!" 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제품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30대 청년의 말이다.

팔순 어른이 계산대로 책 한 권을 들고 나오면서 "내가 그렇게 찾던 얘기가 이 책 속에 있어요! 저 구석에서 찾았어요! 이 기분 알아요?" 뻔하게 둘러있는 작가들에게 알리기라도 하듯이 소리 높여 말한다. 웃음으로 답하는 책방지기에게 책값을 치르고 꺾꺾 웃으며 나간다. 책방 구석구석 웃음이 빙글빙글 흐른다.

인천을 고민하는 시인이 인천의 생태적 본질을 포효하고, 나라를 고민하는 어른이 나라의 사정을 읽어내 민중 속에 흐르는 힘과 갈 길을 제시한다.

인천일보에 실린 이성진 선생의 '소설가 박경리와 배다리 헌책방'에는 1948년 박경리 선생이 본 배다리 사람이 언급된다. "배다리 금곡동 주민들은 지식인들처럼 심오하고 체계적인 사상이나 철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들 생활 속에서 터득한 본능적 촉각으로 그 이상의 것을 체득했던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 배다리 사람들 속에서 뿌리 깊게 내려진 민족의 슬기를 읽어내 준다. 진솔한 삶에서 앎으로 깨어가는 낭독이 소리 없이 흐른다.



1920~30년대 쌀포대

미곡수출장면

1말짜리 뒷박

‘담손이정미소’ 최초 근대식 방앗간

글 김윤식 시인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다시 20년 전부터 서인 땀손이(人名)방아간이 생긴 이래 근년에는 일본인 상공업의 번영을 따라 선인(鮮人)의 직공의 수도 격증되야 목하 인쇄, 철공, 양촉(洋燭), 비루(飛陋), 제염, 양조(釀造), 인촌(燐寸), 염색, 인접(靱摺, 매갈이), 정미 등 각 공장만 하야도 약 2천여 명이나 되고 더구나 각 정미소에 노니어 노역하는 천여의 여공이 잇습은 이곳에서 처음 보았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화평(花平), 신화수리(新花水里), 송림(松林), 송현(松峴) 등 각리(各里)의 토옥(土屋)으로 들고 나는 백의군(白衣群)은 전부가 각 공장에서 활동하는 노작대(勞作隊)이다.”

인용한 글은 1924년 8월호 ‘개벽’ 잡지의 기사 ‘인천아너는 엇더한 도시’의 일부분이다. 당시 철자(綴字)로 옮긴데다가 생소한 어휘도 섞여 있어 이해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용인즉 인천의 여러 상공업 분야 가운데 정미업이 가장 활발이며, 노동자

총 2천여 명 중 정미소 여공이 그 절반인 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항은 국내 최대의 미곡 집산지로 등장하게 되어 시중 도처에 미곡이 쌓이게 되었다. 이때 일본 상인들은 처음에는 버를 섬 채로 수입해 갔으나 선임이 많이 들었으므로 이를 인천항에서 가공하여 백미로 가져가게 되었기 때문에 인천항에 정미업이 발달된 것이며, 미곡의 수출은 인천항에 정미공업을 싹트게 하는 동인(動因)이 되었다.”

‘인천상공회의소 120년사’의 내용으로 인천에 정미업이 발전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고 있다. 최초의 정미소는 눈치 빠른 진등(進藤鹿之助)이라는 일본인이 1889년 3월 중구 중앙동 4가에 설립한 인천정미소(仁川精米所)다. 물론 그 전에는 ‘인력으로 커다란 흙 맷돌을 돌리는 매갈이공장’이 있었지만 질이나 양에 있어서 정미소에 비할 바가 되지 못했다.

그렇기는 해도 인천정미소 역시 하루 16시간을 가동해 고작 30석 정도를 정미하는 여전히 빈약한 수준이었다. 이때 인천항에 정착한 미국인 무역상 타운센드(Townsend)가 중구 송학동 3가에 본국으로부터 앵겔식 증기동력 정미기 4대를 들여 정미소를 차린다. 뉴욕제인이 기계는 ‘쌀을 곱게 마찰했기 때문에 윤기가 나고 깨끗하며 돌의 섞임이 전혀 없는’ 신안특허품이기도 했다. ‘타운센드’라는 발음이 설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정미소를 ‘담손이정미소’라고 불렀는데, 앞에 인용한 글에 ‘땀손이방아간’이란 구절이 보이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1892년에 설립된 이 담손이정미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정미소로 기록된다.

자료에는 이 해 9월에 일본인 오전(奥田)도 송학동에 정미소를 차렸는데 이때 인천정미소를 인수한 것으로 보이며, 러일전쟁 후에는 담손이정미소까지 수중에 넣어 오전정미소(奥田精米所)라는 이름으로 인천 ‘정미 왕국’의 첫 테이프를 끊고, 러일전쟁을 전후해서는 역무(力武), 가등(加藤), 십천(辻川), 삼야(衫野), 제등(齊藤), 유마(有馬) 등의 대형 기계식 정미소가 생겨나 바야흐로 인천항에 정미업 시대를 연다.

특히 역무, 가등 두 정미소는 1920년대 이후 시설이나 생산 능력에서 선두를 달리는 큰 업체였는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과 인간적인 대우 문제로 툭하면 노사가 충돌했다. 물론 이들 외에도 대부분의 정미소 역시 임금 문제로 자주 노사분쟁을 일으켰다. 이런 경험은 후일 인천 노동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국인 경영의 정미소는 1924년 4월 유군성(劉君星)이 신흥동에 세운 유군성정미소가 최초다. 이듬해에 주명기(朱命基)의 주명기정미소, 1929년에 김태훈정미소(金泰

勳精米所)와 뒤이어 이흥선정미소(李興善精米所), 이순일정미소(李順日精米所) 등이 생겨나 일본인들과 경쟁했다. 광복 후에는 주로 ‘일본인 정미소를 인계한 고려, 협신, 삼화, 대륙정미소 등이 명맥’을 이어오다가 근일에 이르러 모두 폐업하면서 곡항 인천의 정미업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아무튼 당시는 중추 산업인 정미업에 관련한 이런 우스개도 있었던 모양이다. 1933년 2월호 <별건곤> 잡지에 실린 유머 모음집에서 ‘백노동(白勞動)’이란 웃음거리를 옮겨 본다.

지배인 『자네 그전에 어대서 노동해 본 경험이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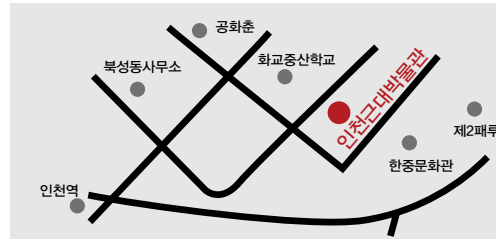
구직자 『네. 잇고 말고요 날마다 새하얗게 되도록 힘드는 노동을 해 보았는 걸요!』

지배인 『응~ 하얗게 되는 노동? 아마 새까맣게 되도록이란 말을 잘못하는 말이겠지!』

구직자 『아니요. 천만에 말씀입니다. 이전에 정미소에서 일을 하엿는 걸요..』

쌀 검사하는 색대

1되짜리 뒷박



별난 역사, 별난 물건 시리즈에 게재된 정미업 관련 물건 및 사진은 중구 차이나타운에 있는 <인천근대박물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엔 희귀한 근대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관람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료는 성인 2천원, 학생 1천원. 문의 764-1988

인천-하와이 교류 협력 강화

우리시와 하와이의 교류 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송영길 시장이 하와이 자매도시 정상회의에 참석, 청정에너지 포럼 및 호놀룰루에 설치된 '인천-하와이 공원' 표지석 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해 3박 5일 일정을 마치고 지난달 17일 귀국했다.

이번 방미에서 송 시장은 하와이 자매도시 정상회의를 통해 각국 지방정부 간 우호관계를 높이고 하와이 교민들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송 시장 일행의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인천을 찾은 피터 칼라일 호놀룰루 시장의 초청으로 이뤄져, 하와이 자매도시 정상회의에는 중국 청도시 등 10개 도시 시장들이 참석했다.

송 시장은 방미 중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지역경제발전 및 청정에너지 정책 소개와 투자유치 활동에 이어 하와이 주립대학으로 이동, 교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북아 정세와 미국의 역할'에 대해 강연했다. 또 진주만에 위치한 미국 태평양함대를 방문해 패트릭 월쉬 사령관을 만나 관심 사안을 논의한데 이어 하와이에서 주최한 도시정상회의 환영만찬에 참석해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모습 등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인천-하와이 공원' 표지석 제막식에 참석해 피터 칼라일 호놀룰루 시장과 참석한 교민 100여 명과 환담하며 우호를 다졌으며, 라디오서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인천-호놀룰루 간 교류협력 방안을 설명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440-3232



V-ENS와 전기자동차부품 연구시설 건립협약

우리시는 지난달 21일 LG그룹 계열사인 V-ENS와 인천 서부산업단지 내에 전기자동차 부품 연구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V-ENS는 총 9만6천885㎡(3만여 평) 규모 부지에 전기자동차용 부품 연구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우리시는 공장 착공 등 각종 인·허가 처리를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전기자동차 부품 및 충전인프라 구축 등 전기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역점 사업인 'Auto Care 프로젝트(자동차산업 중 합육성 발전계획)'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으며,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 확대 보급을 통한 그린에너지 보급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의 : 시 투자유치담당관실 440-3292

피아니스트 백건우 연평도서 평화의 선물

피아니스트 백건우씨가 지난 9월 17일 인천시 웅진군 연평도에서 섬 주민들을 위한 야외 피아노 콘서트를 열었다.

백건우씨는 연평도 주민과 군인, 육지에서 연주를 보러 온 관객 500여 명 앞에서 쇼팽의 '베토벤의 '월광' 등 평소 좋아하는 곡들을 연주했다. 또 한 시간여 동안의 연주가 끝난 뒤 공연장 근처의 근린회관에서 부인인 영화배우 윤정희씨, 주민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24일까지 위도, 육지도 등 섬마을 세 곳을 도는 '섬마을 콘서트'를 진행했다.

문의 : 시 문화체육관광국 440-4022



'세계장애대회' 내년 10월 개최

세계 장애인들의 권리향상과 재활능력 증진을 도모하는 대회가 2012년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천 송도국제도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우리시는 이 기간 아태경제사회이사회(UNESCAP) 고위 정부간 회의, 세계재활협회(RI)세계대회, 아시아태평양장애포럼(APDF)세계대회, 아시아태평양장애인연맹(AP DP)세계대회 등 세계 장애계의 빅4 대회를 아우르는 '세계장애대회'를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는 이 대회에는 2천여 명의 국내 장애인을 포함해 세계 100개국 장애인 3천여 명이 참가한다.

문의 : 시 보건복지국 440-2942

인천시내버스, 지하철 등 공공요금 인상

인천 시내버스와 지하철, 하수도 요금 등이 올해 하반기부터 인상된다.

우리시는 지난달 15일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시내버스, 지하철, 하수도, 인천대공원 주차장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시내버스는 교통카드 기준으로 현재 900원, 600원인 간선버스, 지선버스 요금을 각각 200원씩 올리기로 했다. 인상 시기는 이용자 부담을 감안해 오는 11월 말 100원, 내년 6월 말 100원을 인상하도록 했다. 지하철은 기본요금 900원을 1천100원으로 올리고 인상 시점은 서울시와 합의해 결정한다.

하수도 요금은 평균 30%를 인상해 1개월에 30아를 배출하는 일반가정의 경우 월 1천100원을 추가로 부담한다. 이 외에도 인천대공원 주차요금은 1일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오른다.

문의 : 시 경제수도정책관실 440-4203

2014 AG 강화경기장 기공식

우리시는 지난 9월 27일 강화군 강화를 국화리에 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강화경기장 기공식을 가졌다.

강화경기장은 7만6천㎡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 관람석 5천석 규모로 건립하며, 실내에는 태권도·우슈 경기장이, 외부에는 BMX경기장이 들어선다.

총 사업비는 838억원이며, 오는 2013년 8월 준공할 예정이다.

문의 : 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440-4143



청라지구, 청라국제도시로 명칭 변경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의 명칭이 '청라국제도시'로 변경됐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8월 청라지구 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청라국제도시로의 명칭 변경을 요청받고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명칭을 바꿨다.

청라지구 입주민들 역시 그동안 국제업무(금융), 첨단산업, 주거지 등 개발 콘셉트에 맞는 명칭을 요구해왔고,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명칭 변경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 의사를 나타낸 점도 새 명칭 변경에 고려됐다.

한편 경제청은 명칭 변경으로 청라지구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개발사업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592

인천데이터센터, 지자체 최초 ISO20000인증 획득

지난 9월 본격 가동에 들어간 인천데이터센터가 IT서비스 분야에서 국내 지자체 최초로 국제 수준의 ISO20000 인증을 획득했다.

ISO20000인증은 IT서비스에 관한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고품질의 IT서비스에 대해 국제인증기구인 BSI(British Standard Institute, 영국표준협회)가 객관적으로 심사해 부여하는 것으로, 지자체 최초로 인천데이터센터가 운영하는 IT서비스 관리체계가 국제표준규격에 부합함을 공인받았다.

특히, 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각각 운영·관리하고 있던 정보자원을 하나로 통합하여 가동에 들어간 센터가 국제표준인증을 획득함으로써 대외적인 신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시 정보화통계담당관실 440-2342

인천 인구 278만2천명

지난 7월 말 현재 인천시 인구가 278만2천458명(외국인 미포함)으로 집계됐다.

우리시 인구는 지난 2006년 말 266만4천명, 2007년 말 271만명, 2008년 말 274만1천명, 2009년 말 275만8천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구군별 인구는 부평구가 56만2천명으로 가장 많고, 남동구 49만1천명, 남구 41만9천명, 서구 42만명, 계양구 34만5천명, 연수구 28만3천명, 중구 9만3천명, 동구 7만9천명, 강화군 6만6천명, 옹진군 1만9천명의 순이다. 인천 거주 외국인인 5만1천703명으로 집계됐다.

문의 : 시 정보화통계담당관실 440-2374

세계 각국의 음식문화가 한자리에

우리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2011 인천세계음식문화박람회’를 이달 7일부터 9일까지 문학경기장 동문광장에서 개최한다.

한국과 세계 식문화를 통한 글로벌 소통과 교감의 장이 될 인천 세계음식문화박람회는 전시·경연·체험·공연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전시코너에서는 음식전시관, 식품기기·용품관, 식품산업관, 제과·제빵전시관, 프랜차이즈 창업관 등을 운영한다. 또 경연대회는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세계요리경연이 개인과 단체 부문에서 치러지고 학생 제과 경연도 펼쳐진다.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영양체험관, 음식만들기, 요리교실, 나눔행사 등으로 진행한다.

참가자들을 위한 볼거리로는 세계전통공연, 지구촌 장기자랑, 직장인밴드 공연, 지역동아리 공연 등을 선보인다.

문의 : 시 보건복지국 440-2763

‘일하는 노인 전국대회’ 개막

전국 16개 시·도의 노인일자리사업을 홍보하고 관련 생산품을 전시·판매하는 ‘제5회 일하는 노인 전국대회’가 지난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렸다.

우리와 보건복지부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1천여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관계자 1만5천여 명이 참가해 노인일자리 체험과 이 같은 일자리에서 생산된 제품의 전시·판매 등을 진행했다. 또 홍보마당과 취업알선마당이 열리기도 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개회식 대회사에서 “어르신들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가 역동적 노인상 구현과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의 장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시 여성가족국 440-2812



인천상륙작전 인천 앞바다서 재연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적인 수행을 기념하고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제61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가 지난 9월 15일 오전 중구 월미도 앞바다에서 펼쳐졌다. 국방부가 주최하고 해군 본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국내 군함 중 가장 큰 규모인 1만4천500여급 수송함 독도함 갑판에서 진행했으며, 미리 초청받은 일반 시민 600여 명, 참전용사 200여 명, 김성찬 해군 참모총장 등 군 주요 인사를 포함해 1천100여 명이 참석했다.

상륙작전 재연에는 독도함과 상륙함 2척, 고속상륙정 3척, 상륙돌격장갑차 16대, 고무보트 12척, 상륙헬기 6대, 해병대원 68명을 동원했다.

문의 : 시 총무과 440-2213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우리는 인천시여성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난 9월 24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중앙홀에서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을 열었다. 결혼식에서는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이 포함된 다문화가정 부부 30쌍이 화축을 밝혔다.

또 같은 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 주차장에서는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각국의 민속놀이, 먹거리, 전통의상 등을 체험하는 ‘다문화빌리지’ 행사를 개최해 여러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다.

문의 : 시 여성가족국 440-2867

공무원 급여 우수리로 소외계층 지원

우리는 공무원들의 급여에서 1천원 미만의 우수리를 기부한 모금액으로 사랑의 집 고치기 행사를 한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2천600여 명의 봉천 직원들이 급여에서 1천원 미만의 우수리를 기부하는 운동을 펴 최근까지 8천300여 만원을 모았고 이 가운데 1천700만원을 각종 복지사업에 사용했다. 6천600만원의 남은 금액 중 6천500만원으로 사랑의 집 고치기와 사랑의 연탄배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급여 우수리 나눔운동을 지역 내 대기업 20~30곳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의 : 시 보건복지국 440-2922



인천도시철도 2호선 목업품평회 시찰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의정부경전철차량기지, 부산지하철 4호선차량기지, 창원시 현대로템(주)에서 제작 중인 인천도시철도2호선 목업품평회를 시찰했다.

이번 시찰은 우리시가 당면한 대중교통수요증가에 적극 대처하고, 시민의 시각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시설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계획됐다. 도시철도분야의 선진지를 비교·시찰하여 우수사례는 인천시 교통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시찰첫날 방문한 의정부경전철과 부산지하철을 시승한 위원들은 무인운행 경전철의 안전성에 관심을 두고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학습선택권 보장 토론회

인천시의회는 지난 9월 16일 시의회 의총회의실에서 ‘학생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제195회 임시회에 상정되는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관련 토론회로 인천시민 및 인천교육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인천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최됐다.

이 토론회는 노현경, 김기홍, 이한구, 이재병, 이용범 의원이 주최했고, 지정토론에는 이한구 의원, 류석형 인천시교육청 교육과정기획과 장학관, 이광국 부흥고 교사, 윤병환 인천영선고등학교 교장, 정지혜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울란바토르시의회 우호교류의향 체결

인천시의회 초청으로 지난 9월 7일부터 10일까지 몽골 울란바트르시의회 항갈 푸레브도르지 상임위원을 단장 등 9명의 대표단이 인천을 방문했다.

인천시의회와 울란바토르시의회는 우호교류의향을 체결했고, 또한, 정무부시장 예방, 항만공사 및 아시아조직위원회 방문, 경제자유구역 등을 시찰하고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 인천과 니켈, 석탄 등 자원이 풍부한 울란바토르시간에 공동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적극적 교류 방안을 모색했다.

강화 말도, 볼음도, 서검도 주민과 대화

인천시의회는 관내 소외지역을 찾아가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여 의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진정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의정을 실현하고자 지난 8월 24일 강화군 말도, 볼음도, 서검도를 방문하여 주민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도서지역 태풍피해 상황 및 주민 애로·건의사항 등을 경청하고, 시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 및 향후 해당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했으며, 도서지역 방어에 노고가 많은 말도 해변소대를 방문하여 격려했다.

향후에도 수시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 생활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대구세계육상대회서 2014 인천AG 홍보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회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막식에 참석, 관람객 및 세계 각국 선수·임원 등을 대상으로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홍보활동을 펼쳤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주경기장 주변에 설치된 마켓스트리트 내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홍보부스에서 단단지·엠블램·마스코트 깃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특별위원회 | 월미은하레일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꼬마기차 정상운행에 역점 둔다



월미관광특구 관광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월미은하모노레일 사업. 시험가동 중 운행에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껏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월미은하레일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7월 5일 월미은하레일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내년 1월까지 6개월간 활동한다.

월미조사특위는 사업수립 단계부터 현재까지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확인 및 검토와 증언을 통해 사태원인과 책임소재를 파악한 뒤 정상화에 역점을 두고 특위활동을 진행한다.

특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교통공사와 시민검증위원회를 참석시켜 당초 은하레일이 노면전차에서 모노레일로 변경한 사유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월미은하레일은 2007년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한 노면전차레일을 폐지하고 새로운 용역을 채택해 모노레일로 교통수단을 전면 교체했다. 이에 따라 사업비도 3배나 증가했다.

이에 위원들은 ▷노면전차에서 모노레일로 변경되어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온 이유 ▷시에서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추가로 교통공사에서 같은 용역을 또 이유 ▷노면전차가 관광과 교통면에서 모노레일보다 우수할 것 같은데 모노레일이 우수하다

고 한 이유 ▷관광전차 요금을 5천원으로 산정한 사유 등을 묻고 관계자들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도 집중 질의했다. 이 문제로 인천교통공사와 시공사인 한신공영의 주장이 맞서기도 했다.

월미은하레일은 당초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맞춰 개통하려 했지만 사업이 연기됐고, 시험운행 기간중 사고가 잇따라 결국 개통하지 못했다. 시민검증위원회가 제시한 부실시공 증거들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조사특위는 3번의 회의를 이미 마쳤고 10월 7일 4차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4차회의는 월미은하레일 운영 정상화 방안을 놓고 협의와 토론이 진행된다. 하반기 회의는 월미은하레일 기술적 안전성 문제를 집중 조사하고 부실시공의 책임소재, 정상운영을 위한 재정투여에 대한 조정 및 협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조사특위는 오는 12월까지의 운행 여부를 관련기관과 합의한 뒤 내년 시스템을 보완, 운행을 재개 하겠다는 의지다. 시민들의 상당한 세금이 들어간 월미은하레일. 빠른 검증과 안전성 확보로 골칫덩어리가 아닌 시민의 보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월미은하레일사업 관련 조사특위
인터뷰 _ 안병배 위원장

“시민에 좋은 시설 되돌려 줄 것”

“부실공사로 멈춰서 있는 월미은하레일을 제대로 검증한 뒤 보완해서 시민들의 불거리, 관광활성화 측면에서 하루빨리 시민의 품으로 되돌아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실공사와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어 온 월미은하레일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그 일의 중심에 안병배 위원장(54, 중구제1선거구)이 있다. 안 위원장과 월미은하레일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다. 지난 2002년 제4대의회때 월미관광특구 관광활성화 논의에 관여하면서 노면관광전차가 선택되는 것을 지켜봤는데 6대의회에 들어와 보니 모노레일로 바뀌면서 사업계획 내용도 달라지고 부실공사로 운행이 정지된 상황이 아타까웠다.

“조사특위를 운영해보니 노면전차에서 모노레일로 바뀌면서 사업공기나 예산이 무리하게 운영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모노레일로 바뀌는 과정에서 시민과의 진지한 합의가 먼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안 위원장은 앞으로 진행될 회의에서는 모노레일의 기술적 안전성, 책임소재를 가린 후 운행여부를 위한 재정투여 시, 교통공사, 시행업체 등을 불러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월미은하레일 문제와 관련 시, 공사, 공단에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

“실패한 사업을 모델삼아 공사, 공단이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시민에게도 “정치적 목적이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검토를 거쳐 시민들에게 좋은 시설을 되돌려 주는 것이기에 시간을 갖고 기다려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규제 철폐해야 강화 발전”

클릭! 시의원 _ 안영수 의원



안영수 의원(59, 강화군제1선거구)은 평생 강화를 벗어난 적이 없다. 강화도 토박이이자, 평생의 업이었던 38년간의 공직생활에도 강화를 떠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 의원에게 강화는 자신의 꼭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생명이나 마찬가지다.

안의원은 제6대 시의회에 입문한 계기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강화에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이 없어 좌절된 적이 많아 공직보다는 정치를 통해 강화를 발전시키자는 큰 뜻을 품었다. 또 후배들에게 자리를 터주기 위한 용퇴도 한몫했다.

안의원은 강화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관광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에 기반이 될 일반 산업단지조성, 강화농업인단체 종합회관 건립, 강화읍 재창조 사업추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강화는 인천의 보석이기에 강화를 살리려면 관광이 활성화 돼야하기에 영종~강화대교 건설, 강화를 둘러싸고 있는 규제 철폐를 주장한다.

안 의원은 현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복지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안 의원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서해5도지역 특별법제정을 위한 결의안 3건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발의했고, 강화도 수도권정비법 제의를 촉구하는 군민서명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안 의원은 오늘도 살고 싶은 강화, 일자리 풍부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신발끈을 질끈매고 강화 곳곳을 누비고 있다.

‘2011 길 위의 인문학’ 참가자 모집

부평기적의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11 길 위의 인문학’ 강좌를 개최한다. 무료로 진행하며 사전 방문 접수해야 참여 가능하다.

- 행사명 : 2011 길 위의 인문학 강좌-터무니 없는 궁궐이야기
- 참가대상 : 고등학생, 성인이면 누구나
- 강의내용 및 일시
 - － 제1강 : 10월 15일(토) 10:00~12:00
〈터무니없는 궁궐이야기-일제강점기 변형을 중심으로〉
 - － 제2강 : 10월 16일(일) 9:30~11:30
〈사라진 터무니, 남겨진 오해-창경궁 탐방〉
- 접수기간 및 방법
 - － 제1강 : 9월 8일(목)~
 - － 제2강 : 9월 29일(목)~선착순 방문 접수
(※ 단, 1강 참여자에 한하여, 2강 현장탐방 신청 가능)
- 참가비 : 무료
- 문 의 : 505-0612~3, www.bpml.or.kr

노동·생활법을 무료상담안내

- 한국노동청 인천지역 노동교육상담소는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 노동법관련 일체 무료 법률상담 및 무료 서류 작성 등 법률구조 서비스
 -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 －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고소, 고발 구제신청 상담
 - － 산업재해, 최저임금, 비정규직등에 대한 관련
 - －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 일반 민사/형사/가사 등 생활법을 관련 상담 및 무료 서류 작성 등 법률구조 서비스
 - － 부동산, 임대차, 채권, 채무, 이혼, 양육, 상속, 교통사고 등
 - 시 간 : 월~금(오전 9시~오후 6시)
 - 방 법 : 전화, 팩스, 직접 방문 상담가능
 - 문 의 : 515-4881, 팩 스 516-4881

작은음악여행! 하우스콘서트

- 미추홀문화회관은 (구)제물포구락부를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널리 알리고, 관객과 함께 소통하고 나누는 ‘작은음악여행! 하우스콘서트’를 개최한다.
- 일시 : 10월 7일(금) 오후 7:00~8:00
제4회 - 중년의 감성을 자극하는 7080 통기타 소리새
 - 장소 : (구)제물포구락부 ○ 입장료 : 무료
 - 문 의 : 765-0220, 0250

가을학기 문화학교 수강생 추가모집

연수문화원은 가을 문화학교 수강생을 추가 모집한다. 관심있는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

- 강좌기간 : 9월 29(목)~11월 29(화) 2개월
- 접수기간 : 9월 26(월)~선착순 접수마감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 ☞ 연수문화원홈페이지 yeonsu.or.kr
 - ☞ 연수문화포털사이트 call.yeonsu.go.kr
- 인터넷접수 대행시간 : (월~금) 10:00~17:00
(토) 10:00~12:00 (점심시간제외) 12:00~13:00
- 교육내용 : 문화 · 교양 / 음악 · 전통예술 / 미술 · 공예
어학 / 정보화(컴퓨터)
- 문 의 : 821-6229

저소득층 따뜻한 겨울나기 자선장터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은 ‘나눔과 존중’을 실천하고자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선물나눔 자선 장터를 연다.

- 제 목 : 사랑나눔 장터(옥tober 바자회)
- 취 지 : 저소득 500가구에게 겨울나기선물 기금마련
- 일 시 : 10월 22일(토) 11시~18시
- 장 소 : 홈플러스 인하점 광장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주차장
- 문 의 : 426~1382~5

청소년기자단 제12기 모집

우리시는 청소년기자단 ‘청소년웹진 MOO’ 제12기를 모집한다. 기자에 관심있는 청소년의 지원 바란다.

- 신청자격 : 인천 거주 15~17세 청소년
- 신청방법 : MOO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모집분야 및 인원
 - － 취재기자 : 11명(작문 및 면접시험)
 - － 촬영편집기자 : 1명(프리미어 · 포토샵 편집프로그램 및 면접)
- 일 정
 - － 실기심사 : 11월 5일(토), 15:00
 - － 면접심사 : 11월 12일(토), 15:00
 - － 최종 선발발표 : 11월 22일(화)
- 청소년 기자 활동
 - － 활동기간 : 2012년 1월~12월(1년)
 - － 한 달에 2번 편집회의 참석 및 청소년웹진MOO 홍보
- 문의 : 440-2844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9~12월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을 안내하고 있다. 자격별 기타 자세한 사항은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 상시 기능사 실시종목
- 필기(9종목) : 지게차, 굴삭기,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한식조리, 양식조리, 미용(일반), 제과, 제빵
- 실기(5종목) :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한식조리, 양식조리, 미용(일반)
- 문의 : 820-8622~4

○ 국가기술자격 시험시행 일정

| 구 분 | 등 급 |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 필기 시험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실기시험 |
|-----|-------------|-----------------------|-----------------|-----------------------|-----------------|
| 정기 | 기사· 산업기사 | 9월 2일~9월 8일 | 10월 2일 | 10월 14일 | 11월 12일~11월 25일 |
| | 기능사 | 9월 16일~9월 22일 | 10월 9일 | 10월 28일 | 12월 3일~12월 16일 |
| 상시 | 기능사 | 9월 5일~9월 9일 | 9월 20일~9월 21일 | 시험당일 또는 시험익일 | 10월 17일~10월 23일 |
| | | 9월 26일~9월 30일 | 10월 11일~10월 12일 | | 10월 31일~11월 6일 |
| | | 10월 10일~10월 14일 | 10월 25일~10월 26일 | | 11월 14일~11월 20일 |
| | | 10월 24일~10월 28일 | 11월 8일~11월 9일 | | 11월 28일~12월 4일 |
| | | 11월 7일~11월 11일 | 11월 22일~11월 23일 | | 12월 12일~12월 18일 |
| | | 11월 21일~11월 25일 | 12월 6일~12월 7일 | | |
| | | 11월 28일~12월 2일 | 12월 13일~12월 14일 | | |

‘짜장면’ 등 39항목 표준어로 인정

국립국어원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았던 ‘짜장면, 먹거리’ 등 39개 표준어를 인정하고 인터넷으로 제공하는‘표준국어대사전’(stdweb2.korean.go.kr)에 반영했다.

〈새로 추가된 표준어 목록〉

- 현재 표준어와 같은 뜻으로 추가로 표준어로 인정한 것(11개)

| 추가된 표준어 | 현재 표준어 | 추가된 표준어 | 현재 표준어 |
|---------|--------|---------|--------|
| 간지럽히다 | 간질이다 | 세간살이 | 세간 |
| 남사스럽다 | 남우세스럽다 | 쌈싸름하다 | 쌈싸래하다 |
| 등물 | 목물 | 토란대 | 고운대 |
| 맨날 | 만날 | 허접스레기 | 허섭스레기 |
| 못자리 | 뫼자리 | 흙담 | 토담 |
| 복숭아뼈 | 복사뼈 | | |

- 두가지 표기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것(3개)

| 추가된 표준어 | 현재 표준어 |
|---------|--------|
| 택견 | 태견 |
| 품새 | 품세 |
| 짜장면 | 자장면 |

○ 현재 표준어와 별도의 표준어로 추가로 인정한 것(25개)

| 추가된표준어 | 현재 표준어 | 뜻 차이 |
|---------------|--------|---|
| ~갈래 | ~기에 | ~갈래 : ‘~기에’의 구어적 표현 |
| 개발새발 | 괴발개발 | ‘괴발개발’은 ‘고양이의 발과 개의 발’이라는 뜻이고, ‘개발새발’은 ‘개의발과 새의발’이라는 뜻임 |
| 나래 | 날개 | ‘나래’는 ‘날개’의 문학적 표현 |
| 냄음 | 냄새 | ‘냄음’은 향기롭거나 나쁘지 않은 냄새로 제한됨 |
| 눈꼬리 | 눈초리 | 눈초리: 어떤 대상을 바라볼때 눈에 나타나는 표정 눈꼬리 : 눈의 귀쪽으로 꺾인 부분 |
| 떨구다 | 떨어뜨리다 | ‘떨구다’에 ‘시선을 아래로 향하다’라는 뜻 있음 |
| 뜨락 | 뜰 | ‘뜨락’에는 추상적 공간을 비유하는 뜻이 있음 |
| 먹거리 | 먹을거리 | 먹거리 : 사람이 살아가기 위하여 먹는 음식을 통틀어 이름 |
| 메꾸다 | 메우다 | ‘메꾸다’에 ‘무료한 시간을 적당히 또는 그럭저럭 흘러가게 하다.’라는 뜻이 있음 |
| 손주 | 손자(孫子) | 손자 : 아들의 아들, 또는 딸의 아들 손주 : 손자의 손녀를 아울러 이르는 말 |
| 어리숙하다 | 어수룩하다 | ‘어수룩하다’는 ‘순박함/순진함’의 뜻이 강한 반면에, ‘어리숙하다’는 ‘어리석음’의 뜻이 강함 |
| 연신 | 연방 | ‘연신’이 반복성을 강조한다면, ‘연방’은 연속성을 강조 |
| 횡하니 | 횡허게 | 횡허게 : ‘횡하니’의 예스러운 표현 |
| 걸리적거리다 | 거치적거리다 | 〃 |
| 꼬적거리다 | 끼적거리다 | 〃 |
| 두리뭉실하다 | 두루뭉술하다 | 〃 |
| 맨승맨승/ 맹승맹승 | 맨승맨승 | 〃 |
| 바둥바둥 | 바동바동 | 〃 |
| 새초롬하다 | 새치름하다 | 〃 |
| 아웅다웅 | 바둥바둥 | 〃 |
| 아웅다웅 | 아웅다웅 | 〃 |
| 아멸차다 | 아멸치다 | 〃 |
| 찌뿌둥하다 | 찌뿌듯하다 | 〃 |
| 추근거리다 | 치근거리다 | 〃 |

10월 문화 정규강좌 풍성

미추홀도서관은 하반기 문화 정규강좌를 연다. 영어인형극, 인문학강좌 등 다양한 문화 강좌에 관심있는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

- 2011 하반기 정규강좌 운영 안내
 - － 운영대상 : 전체
 - － 모집기간 : 9월~10월(매주 접수)
 - － 장 소 : 미추홀도서관컴퓨터교육실(3층)
 - － 지식나눔강좌 : 스마트폰 교실, SNS(Social Network Service) 활용교실(강좌별 주 2회)
- 영어인형극
 - － 일 시 : 10월 29일(토) 14:00 ~ 15:00
 - － 장 소 : 미추홀도서관 지하1층 강당
 - － 대 상 : 유아 및 초등 저학년, 학부모 (선착순 160명 인터넷접수)
 - － 작 품 : 골개굴개 꺼꾸리
 - － 접수방법 : 홈페이지(www.michuhollib.go.kr) > 미추홀행사 > 교육·문화프로그램 > 어린이프로그램)
- 문의 : 440-6662, 6664

2011 인천송도마라톤대회

경인일보사는 10월 16일(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 개최 기원 및 제47회 인천시민의 날 기념으로 ‘2011 인천송도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 대회명 : 2011 인천송도마라톤대회
- 장 소 : 송도센트럴파크
- 대회일시 : 10월 16일(일), 오전 9시 출발
- 참가부문 : 풀코스, 하프코스, 10km, 5km 코스
- 예상인원 : 약 1만명 이상
- 문 의 : 861-3200

한국의 무신도 유물 전시

우리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14호 단청장 정성길이 운영하는 헤명단청박물관은 개관 2주년을 맞아 한국의 무신도 유물을 전시한다. 또 10월 2일에는 단청그리기 체험, 시연 및 교육이 있다.

- 전시기간 : 10월 1일~11월 28일
- 장 소 : 헤명 단청 박물관
- 관람료 : 7세 이하~60세 이상은 무료, 8세~20세 1천500원, 21세~59세 : 3천원
- 문 의 : 868-5898

가을맞이 월미공원 정기체험 공연

인천 서부공원사업소는 가을철을 맞아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가을을 맞아 개최하는 월미공원 정기체험 및 공연행사에 많은 시민이 찾길 바란다.

- 일 시 : 9월 17일(토)~10월 30(일), 매주 토, 일요일, 14:00~17:00
- 장 소 : 월미공원 한국전통정원 내 양진당
- 행사일정 및 내용

| 월 | 일 | 행사내용 | |
|-----|-----|-----------------|---------------------------|
| | | 공 연 | 체 험 |
| 10월 | 1일 | 해금공연 | 짚풀공예 체험, 전통옛시식, 전통의상 체험 |
| | 2일 | 대금공연 | 한지공예 체험, 떡만들기 체험, 전통의상 체험 |
| | 8일 | 버베기(추수 및 탈곡) 체험 | |
| | 9일 | 가야금공연 | 나무공예 체험, 떡만들기 체험, 전통의상 체험 |
| | 15일 | 해금공연 | 소고만들기 체험, 전통옛시식, 전통의상 체험 |
| | 16일 | 대금공연 | 짚풀공예 체험, 떡만들기 체험, 전통의상 체험 |
| | 22일 | 가야금공연 | 한지공예 체험, 전통옛시식, 전통의상 체험 |
| | 23일 | 해금공연 | 나무공예 체험, 떡만들기 체험, 전통의상 체험 |
| | 29일 | - | 소고만들기, 전통옛시식, 전통의상 체험 |
| | 30일 | - | 짚풀공예 체험, 떡만들기 체험, 전통의상 체험 |

- 참가비 : 무료
- 문 의 : 440-5921

2011 대한민국 도예공모전

서구청은 천년의 숨결 녹청자와 함께하는 2011대한민국 도예공모전을 연다. 도예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공모분야
 - － 현대도자분야 : 조형도자, 공예도자, 제품도자
 - － 전승도자분야 : 전통도자, 녹청자
- 출품자격 : 국적·연령 제한 없음
- 출품료 : 3만원/1점
- 시상내역 : 총 4천만원

| | |
|-----------|-----------------------|
| 대 상 (2점) | 2천만원(각 1천만원·매입상금) |
| 우수상 (3점) | 1천200만원(각 400만원·매입상금) |
| 특 선 (10점) | 500만원(각 50만원) |
| 장려상 (10점) | 300만원(각 30만원) |
| 입 선 (다수) | 상장 및 도록 |

- 작품접수 기간 : 11월 11일(금)~12일(토)
- 출품장소 : 서구문화회관 (인천 서구 서달로 190)
- 문 의 : 560-4345, 010-6216-0011, 010-8870-8867

●소래포구축제 일정

| 시 간 | 13일(목) | 14일(금) | 5일(토) | 16일(일) |
|-------------|------------------------------|------------------------------|--|--|
| 14:00~14:30 | <p>풍어제가 놀자 서해안 대동풍어제</p> | <p>주민자치 동아리 경연대회</p> | 남동구 풍물단 | <p>풍어제가 놀자 서해안 배연산풍어제</p> |
| 14:30~15:00 | | | <p>남사당패 놀이</p> | |
| 15:00~15:30 | | | | |
| 15:30~16:00 | | | | |
| 16:00~16:30 | | | | |
| 16:30~17:00 | | | <p>소래포구 창작 마당극</p> | |
| 17:00~17:30 | | | | |
| 17:30~18:00 | <p>다문화 페스티벌</p> | <p>소래 오케스트라 음악회</p> | <p>폐막식</p> | |
| 18:00~18:30 | | | | |
| 18:30~19:00 | | <p>소래포구 가족 노래자랑</p> | <p>가을밤의 7080 콘서트</p> | <p>I. 폐막공연 '소래열린음악회' II. 불꽃쇼 (소래빛의 향해)</p> |
| 19:00~19:30 | | | | |
| 19:30~20:00 | | | | |
| 20:00~20:30 | | | | |
| 20:30~21:00 | <p>축하퍼레이드</p> | <p>다문화 페스티벌</p> | <p>소래 오케스트라 음악회</p> | <p>폐막식</p> |
| 17:30~18:00 | | | | |
| 18:00~18:30 | <p>화합의 남동 퍼포먼스</p> | <p>다문화 페스티벌</p> | <p>소래 오케스트라 음악회</p> | <p>폐막식</p> |
| 18:30~19:00 | | | | |
| 19:00~19:30 | | | | |
| 19:30~20:00 | | | | |
| 20:00~20:30 | <p>가을밤의 7080 콘서트</p> | <p>가을밤의 7080 콘서트</p> | <p>I. 폐막공연 '소래열린음악회' II. 불꽃쇼 (소래빛의 향해)</p> | |
| 20:30~21:00 | | | | |

문의 소래포구축제추진위원회 468-1712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일정

| 시간 | 8일(토) | 9일(일) | 15일(토) |
|-----------------|--|--|--------------------------|
| 10:30 ~16:00 | 아름다운 삼랑성 그리기 전국 미술 실기 대회 삼랑성 전국 학생 글쓰기 대회 | 되돌아보는 천년 전통사 역대조사 다례제 | -지역 문화 한마당 (전등사 특별무대) |
| 12:30 | | | |
| 13:00 | | 천년의 기다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호국영령진혼 영상대제 (전등사 특별무대) | |
| 18:30 | 식전행사(전등사 특별무대) | | |

문의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조직위원회 937-0125

| 시 간 | 10월 8일(금) | 시간대 | 10월 9일(토) | 시간대 | 10월 10일(일) | 시간 | 10월 11일(월) |
|-------------|-----------|-------------|------------|-------------|--------------|-------------|------------|
| 10:00~12:00 | 꽃창고 공연 | 12:00~13:00 | 점심 및 행사안내 | 11:00~12:00 | 망동어 낚시대회 | 10:00~12:00 | 새우젓 경매 |
| 10:00~12:00 | 학생사생대회 | 13:00~13:30 | 강화새우젓 나누기 | 11:00~12:00 | 생선회시식회 | 12:00~14:00 | 점심 및 행사안내 |
| 12:00~13:00 | 점심 및 행사안내 | 13:30~14:00 | 강화쌀 나누기 | 12:00~13:00 | 점심 및 행사안내 | 14:00~14:30 | 사물놀이공연 |
| 13:00~14:00 | 수산물큰잔치 | 14:00~15:00 | 강화갯벌장어 잡기 | 13:00~13:30 | 강화새우젓 나누기 | 14:30~15:30 | 수산물 큰잔치 |
| 14:00~15:00 | 농산물큰잔치 | 15:00~16:30 |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 13:30~14:00 | 강화농산물 나누기 | 15:30~16:30 | 농산물 큰잔치 |
| 15:00~17:00 | 어르신큰잔치 | 16:30~17:00 | 식전행사(해경악대) | 14:00~15:30 | 강화갯벌장어 잡기 | 16:30~18:00 | 휴식시간 |
| 18:00~19:00 | 7080 페스티벌 | 17:00~18:00 | 개막식 | 15:30~16:00 | 새우젓 즉석경매 | 18:00~폐회식 | |
| 19:00~20:00 | 가요예선(1) | 18:00~18:30 | 식후축하공연(과천) | 16:00~17:00 | 사랑의 김치 담그기 | | |
| | | 18:30~19:30 | 가요예선 1부행사 | 17:00~18:00 | 관광객장기자랑 | | |
| | | 19:30~21:00 | 가요예선 2부행사 | 18:00~19:00 | 새우젓 가요제 본선1부 | | |
| | | 21:00~21:30 | 불꽃놀이(초대형) | 19:00~20:00 | 새우젓 가요제 본선2부 | | |
| | | | | 20:00~20:30 | 새우젓 가요제 시상식 | | |
| | | | | 20:00~20:30 | 불꽃놀이(초대형) | | |

문의 새우젓축제추진위원회 932-9337

●강화 개천대축제 주요 행사

| 행사명 | 내 용 |
|---------|----------------------------------|
| 공식·방송행사 | 식전공연, 개막식, OBS 공개방송 '열린하늘 음악회' |
| 공연행사 | 남사당 놀이, 강화군민 노래자랑, 전통 및 퓨전국악공연 |
| 체험행사 | 마니산 기체험 교실, 전통놀이 체험, 참성단 쌓기 체험 등 |
| 기타행사 | 4344 개천대제 봉행, 기와 소원 등반행사 |

문의 강화군 문화예술과 930-3623

●경서동 녹청자축제 일정

| 시 간 | 8일(토) | 9일(일) | 10일(월) | 11일(화) |
|-------------|--|---|-------------------------------------|-----------------------------|
| 오전 11시 | | | 어린이집 초청 (마술, 뮤지컬) | |
| 10:00~18:00 | 일일체험(각종부스), 사료관 기획전시실(녹청자 지역작가전시회), 사료관 내 1층(서구 옛 사진전) | | | |
| 13:00~14:00 | | 어린이특집 마술,인형극 | | KBS 진품명품 (전통 가마 앞) |
| 14:00~15:00 | 녹청자 세미나(사료관) 주제 : 녹청자의 미래가치 | 녹청자경매(10') 타투난장 공연 (풍물패, 난타, 크로스오버, 한국무용 등) | 서굿들노래 (향토문화보존회) | |
| 15:00~16:00 | | | 녹청자경매(10') 쑥대고잔지경소리 (향토문화보존회) | |
| 16:00~17:00 | 풍물놀이 | | 문화기부공연 (장기자랑) | 폐막 |
| 17:00~17:30 | 망델리가마 불지피기 (전통가마) | 식전 행사 | | |
| 17:30~18:00 | 개막식 | | | |
| 18:00~19:00 | 축하문화공연 (특집공개방송) | | | |
| 19:00~20:00 | | | | |

문의 서구청 560-4343

●2010 강화도 새우젓축제

인천을 알아가는 재미가 가득!

흥기종기 모여 있는 장독대와 나지막한 흙 담장, 둥그런 박에 가을이 그득 담겼다. 지금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정경이 되었지만, 그럼 또 어째랴, 우리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우리 모습인데... <인천대공원에서>

다른 부분은 모두 다섯 곳입니다.



9월호 '다른 그림 찾기' 정답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정답자 가운데 열 분을 추첨해 알립니다.



| | |
|----------------|----------------|
| 정은주 연수구 옥련동 | 임병연 남동구 간석1동 |
| 김은주 부평구 부평1동 | 염정은 부평구 산곡4동 |
| 김형철 고양시 일산서구 | 김세희 부평구 산곡동 |
| 이지연 부평구 부평2동 | 최정옥 동구 송림2동 |
| 이은지 부평구 갈산2동 | 김보미 서구 가좌동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은 시민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인천 다른 그림 찾기에 응모하세요. 인천을 주제로 다른 그림 찾기 문제를 만들어 주는 것도 환영합니다(단, 정답은 우편으로만 받습니다).
- 사진도 공모합니다. 주제는 자유입니다. 추억이 담긴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독자엽서 당첨자 ※ 독자엽서에 참여한 네 분을 선정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김선희 | 남동구 구월동 권이병 | 강원도 원주시 조정희 | 서울시 마포구 김경균 | 연수구 송도동

다른 그림 찾기
어디가 다를까?



김치 찰작



장원



햇살 좋은 가을운동회 날

운동회의 계절이 돌아 왔습니다. 운동회 중에는 이어달리기가 하이라이트인 것 아니죠? 아직 어린 2학년 학생이라 바통을 주고받는 모습이 익숙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육상 선수 못지않네요.

— 김성중 강화군 교동면

미래의 피아니스트

생전 처음으로 피아노 의자에 앉아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건반을 하나하나 누르는 우리 아이. 커서 꼭 멋진 피아니스트가 되렴~ 엄마 아빠가 응원해 줄게.

— 박경환 서구 당하동



아빠~ 게한테 물렸어요~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 아빠가 잡아준 게를 가지고 놀다가 게한테 물렸네요~ 집 근처에 생태공원이 있어서 자주 찾곤 하는데 갈 때마다 갯벌의 소중함을 깨닫곤 합니다. 생태공원이 시민의 좋은 휴식처가 되길 바랍니다.

— 김종숙 시흥시 월곶동



미래를 향해 GO! GO!

친구들과 함께 대학탐방을 갔습니다. 꿈에 그리던 대학 캠퍼스에 가니 오랫동안 움츠려 온 가슴을 활짝 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모두 미래를 향해 힘껏 날아보았답니다.

— 정새봄 부평구 청천2동



토끼야 예쁘게 그려줄게~

귀여운 토끼야 움직이면 안돼~ 언니가 예쁘게 그려줄게~ 동물을 좋아하는 착한 우리 딸. 커서 화가가 되려나 봅니다.

— 김선미 남동구 논현동

보내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문의 ☎ 440-8305)
홈페이지(goodmorning.incheon.go.kr)와 시 트위터(twitter.com/smartincheon, 영문사이트), (koreantweeters.com/smartincheon, 한글사이트)로도 받습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접수합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 장원과 퀴즈문제 작성은 각 3장)을 드립니다.

WALL STREET JOURNAL



세계 언론의 스포츠라이트 쏟아지다

CNN, 월스트리트 저널, 디스커버리 채널 등 세계 유수 언론이 세계로 화려하게 비상하는 송도국제 도시에 찬사를 보냈다. 외신 보도를 통해 송도국제도시의 위상을 확인하고 빛나는 내일을 그려본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인천의 놀라운 이야기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업무 단지가 미래도시 개발의 모델이자 친환경적인 계획도시로 해외 유수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CNN, 월스트리트 저널, 디스커버리 채널 등 세계 유명 언론은 국내외 유수 기업 의 투자와 다양한 문화 이벤트로 활기 넘치는 송도국제업무단지를 앞 다투어 보 도했다. 그리고 세계로 화려하게 비상하는 우리시의 역동적인 움직임에 찬사를 보냈다.

먼저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채널 디스커버리 채널은 지난 8월 ‘메가 월드 코리아’ 편을 통해 송도국제도시를 아시아의 떠오르는 별로 묘사했다. 방송은 바다를 메 워 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부터 우뚝 솟은 랜드마크와 최첨단 네트워크 환경까 지 다양한 도시의 모습을 소개했다.

또한 CNN의 유명 뉴스 프로그램인 커넥트 더 월드(Connect the World)와 월드 비즈니스 뉴스(World Business News) 내 코너인 ‘더 게이트웨이(The Gateway)’는 전 세계 주요 교통 거점을 심층 취재하는 시리즈물로 9월 한 달간 인천 특집을 방영했다. CNN은 송도국제업무단지를 중심으로 인천국제공항, 인 천경제자유구역 등의 발전상을 다루며 송도국제도시를 심층 조명하고, ‘에어로 트로폴리스(Aerotropolis)’의 전형이자 도시 개발의 해답’이라며 치켜 올렸다.

유명 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달 12일자 특별 환경 리포트를 통해 ‘친환 경 도시의 건설 방법(How to Build a Greener City)’에 대해 다뤘다. 저널은 “도 시는 점점 더 친환경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며 “송도국제도시가 최첨단 친환경 기술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모든 편의시설이 도보로 15분 거 리에 위치하도록 한 마스터플랜, 에너지 효율적인 지역난방 시스템, 25km에 달 하는 자전거 도로 등에 대해 자세히 다뤘다.



사소한 발견

안녕... 송도유원지...

왕년에 송도유원지 한번 안 가본 사람이 있을까요?

데이트 코스로 피서지로 송도유원지를 제일로 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7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인공백사장에는 물이 빠졌고 놀이기구는 멈춰섰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송도유원지는 7년 후 대형 관광단지로 다시 태어난다고 합니다.

문득 생각났지요, ‘안녕... 송도유원지...’

글 · 사진 심기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